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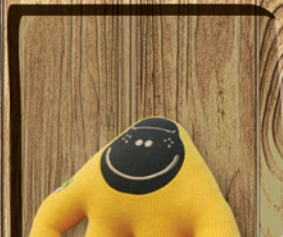
참 재미있는 가게 이야기

10번째 이야기

Cover Story

기부

[내가 행복해지는 선물]



아름다움을 들고 오세요

이해인 시인, 수녀

아름다움을 향한 그리움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마음 모아 '아름다운가게'를 여는 날
산에 들에 우리 마음에 연두빛 새봄이 웃으며 일어서네요
이 가게에 아름다움을 들고 오세요
이 가게에서 아름다움을 사 가세요

나눔이 모여 기쁨을 만들고
기쁨이 모여 행복을 만드는 이 사랑의 자리 꽃자리에서
낮선 이도 반갑게 인사 건네며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될 준비를 하는 오늘

작은 정성이 이루어 내는 큰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작은 도움이 이어주는 인연을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내가 쓰고 남은 것 내게 필요 없는 것을 나누는 궁색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쓸 수 있고 내게 필요하지만
기꺼이 내어놓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 우리는 행복합니다
꾸준히 선한 일을 하고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숨으려는 이들의 향기가 있어 우리는 행복합니다

나누고 나누어도 나눌 것이 남는 자비의 마음
퍼내고 퍼내어도 퍼낼 것이 남는 사람의 마음 더 많이 모아
이 세상을 커다란 보물섬으로 만들어요, 우리-
언제 어디서나 이웃을 섬기며 행복하게 움직이는 '선물의 집'
사계절 내내 웃음으로 문을 여는 '아름다운가게'가 되어요, 우리-

문여는 시간 10:30
문닫는 시간 18:00
일·공휴일은 쉽니다

참 재미있는
가게 이야기

10번째 이야기



Contents



여는글	6
-----------	---

커버스토리_기부

기부가 변하고 있다	8
기부의 역사	12
한국 기업사회공헌의 지형도	16
평범한 일상이 변하는 마법 같은 순간	20
알을 깨는 기부의 패러다임	22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돈쓰기와 윤리적 소비	26
마을에서 희망을 찾다	28
진정한 책의 축제	34
이명우 디자이너 인터뷰_사람의 마음을 얻는 디자인을 꿈꾸다	38
정세진 아나운서 인터뷰_도전하기 때문에 늘 새로운 사람	42
참 놀라운 사장님	48
세계의 베품시장	54

아름다운가게 이야기

아름다운가게의 참 아름다운 감사장	60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사회	62
Color of Beautifulstore's Vintage	66
우리는 즐거운 축제, 지구는 아픈 축제	72
개봉점과 청소년센터 이야기	76
아름다운가게와의 만남	78
아름다운가게에서 만난 삶의 의미	80
그림 에세이_고맙습니다 아직도 기억해주셔서	82
아름다운 사람들	86
아름다운 소식1_아름다운가게 매장 소식	92
아름다운 소식2_아름다운가게 뉴스	96
아름다운 파트너	100

우리 사는 곳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곳이니까!

홍명희

아름다운가게 대표





2011년의 새봄이 다가오던 무렵, 이웃나라 일본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앙. 그것은 이 단어 말고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시각각 현지 상황을 알려오는 뉴스를 지켜보며 먼 곳의 일이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속수무책이고 나약한지 생생하게 바라 봐야 했습니다.

이 무서운 재앙은, 그러나 한 번의 공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수개월이 지나가는 동안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도 파괴된 원전으로 인한 방사능의 위협에 떨어야 했습니다. 방사능은 또 다른 공포였습니다. 매일 마시는 물에서, 불어오는 바람에서, 먹는 음식에서,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는 의심과 두려움이 숨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들이, 늘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일에 애쓰던 사람들이 너무 쉽게 무너지고 고통을 받는다는 것. 어디 지진과 같은 재앙만이 그럴겠습니

까? 날로 파괴되는 환경문제도, 심각해지는 부의 쏠림도, 위로받지 못하는 어린이들과 내일의 소중함을 모르는 어른들,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오래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너무나 당연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막막하더라도 끝까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을 돌보고, 환경을 위해 조금씩 할 수 일들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그것은 결코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더 오래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니깐요.

아름다운가게가 하고자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가게는 곧 다가올 창립 10주년을 준비하며,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과 지나온 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아름다운가게는 참 많은 새로운 시도를 해왔습니다. 재활용나눔가게로 시작해서 공정무역, 벼룩시장, 재활용디자인, 해외지원, 그리고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적기업 발굴과 지원사업까지, 거의 매년 새로운 도전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9년 전 당시부터 지금까지 아름다운가게가 놓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보전하려는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아름다운가게와 같은 꿈을 갖고 계신 우리 시대 모든 시민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가게는 단 하루도 시민 여러분들의 손을 잡지 않고서는 이런 꿈을 꿀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가게는 그래서 희망을 바라보며 일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되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 또한 한결같습니다.

몰래, 알아서 하는 것,
저는 이게 안타까워요.
저의 기부 목표는
사회구조의
비어있는 부분을
지원해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 권혁일 기부자의 본문 글 중에서 -



기부 [내가 행복해지는 선물]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것.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것.

기부가 변하고 있다

황선미
아름다운재단 교육연구국장



최근 미디어를 통해 자주 접하는 말 중 하나가 '기부'다. 해외에서는 워렌버핏이나 빌게이츠와 같은 자산가들의 기부가 화제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전 재산기부나 김장훈, 문근영 등 유명 연예인의 기부도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얼마 전에는 범현대가의 5천억 원대 기부를 통한 재단 설립이 화제가 되었고, 새로운 화두로서 30억 원 이상의 기부자에게는 일정액의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김장훈법'에 대한 국회발의 움직임도 있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었다.

TV 속의 유명인사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기부'는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물건을 구매하면서 '수익금의 일정액을 OO단체에 기부합니다'라는 글귀를 보는 것은 예삿일이 되었고, 공익 방송이나 심지어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어떤 프로젝트 달성시 수익금을 기부하는 일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미디어에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손쉽게 접하게 된 기부문화가 그동안 어떻

게 변해왔는지, 최근에는 기부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몇 가지 아름다운재단의 이야기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서 잠깐, 영화 박하사탕의 첫 장면에서 철도를 거슬러 올라가 시간을 되돌려보는 것처럼 아름다운재단이 창립한 2000년 당시 한국인의 기부는 어땠을까? 또 10여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인의 기부는 어떻게 변해왔을까? 아름다운재단이 한국인의 기부지수를 격년으로 조사하여 발표하는 <Giving Korea>를 통해 몇 가지 흥미로운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표1>에서 보면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큰 변화를 알 수 있는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기부경험이 33%에서 10년만에 55.7%로 증가하였고, 기부금도 98,660원에서 182,000원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하였다. 기부의 정기성을 보면 2000년 16.3%에 비해 2010년 24.2%로 증가하여 지난 10년간 기부의 양적인 증가 뿐 아니라 질적인 부

〈표1〉 Giving Korea 2000 vs 2010 [종교기부금 제외한 순수자선기부 지표]

Question	Giving Korea 2000 (조사기관 : 갤럽)	Giving Korea 2010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기부경험	33.0%	55.7%
기부방법	언론을 통한 기부 49.1% (ARS 38.8%)	단체나 개인에게 직접전달 46.3% (ARS 19.5%)
기부액수	한해 평균 기부금 98,660원	한해 평균 기부금 182,000원
기부 정기성	정기 16.3%	정기 24.2% (매달 84.1% 매분기 11.1%)
기부처 선정	동정심 > 매체홍보 > 사회적의무 26.5% > 20.1% > 10.8%	동정심 > 개인적행복감 > 시민책임감 72.9% > 65.4% > 54.8%
기부희망분야	아동 > 장애인 > 노인 (기부시기 12월 35.5%)	자선및사회복지분야 > 지역사회발전 > 의료 > 해외구호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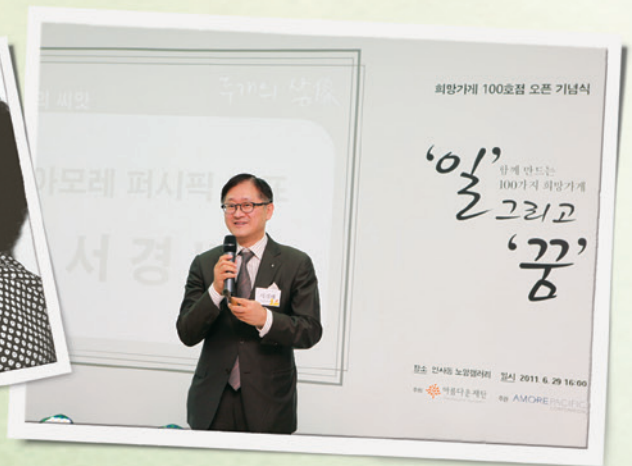
분도 눈에 띄게 성장하였다. 또한 10년 전의 경우 언론(미디어)을 통한 기부, 특히 ARS를 통한 일시 기부가 한국인의 기부의 반을 차지한데 반해 최근에는 단체나 개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다양화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기부처 선정에 있어서도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 혜택을 주는 것에서 지역사회나 해외구호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된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 아름다운재단이 창립할 당시, 한국사회에서는 ‘나눔’이나 ‘기부’라는 말보다는 ‘후원’이나 ‘결연’이라는 말이 훨씬 익숙했던 시기였다. 그 때 아름다운재단은 주로 연말에 일시적으로 TV방송을 통해 이루어지던 나눔의 문화를 좀 더 지속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으로서 다양한 방법과 영역들로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1% 나눔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던 때였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 아름다운재단의 다양한 활동 속에 몇 가지 상징적 ‘기부문화’의 변화를 직감할 수 있는 스토리들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창립 이후 백여 개가 넘는 기금의 운영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부의 트렌드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변화의 흐름이 잘 나타나는 세 개의 기금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선적 의미의 기부에서 참여의 기부, 나아가 투자와 소비까지 확장되는 기부문화의 변화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기부'에 대한 키워드 변화





story 1

아이들의 배움이 곧 나의 배움이 되는

김군자할머니기금

기부=나눔

"내가 평생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그런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내가 다 궁리를 해서 준비해온 거야. 흥분하고 인생의 짐을 또 하나 던져 같으니까 잔소리하지 말아." 2006년 8월

아름다운재단의 첫 기금 '김군자할머니기금'은 일제시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로 해방 이후에도 어렵게 살아오신 김군자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에서 장례비를 뺀 5천만원을 기부한 돈으로 조성한 기금이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06년 8월 할머니가 아름다운재단을 찾아 그동안 모은 돈 5천만원을 다시 기부하셨다.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내놓으신 김군자 할머니는 자신이 배우지 못해 많은 기회를 갖지 못하셨다며,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이 조금 더 큰 기회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하셨다. 이 기금은 할머니의 뜻에 따라 조성된 후 현재까지 총 40여 명의 보육시설 퇴소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되돌려지고 있다.

story 2

한부모여성가장들의 일 그리고 꿈이 되어주는

아름다운세상기금

기부=대안

"희망가게는 저에게 더욱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오래 전 제 할머니께서는 두 개의 희망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 하나는 오늘의 삶을 가꾸는 동백기름이었고, 다른 하나는 내일의 꿈을 창성케 한 제 아버님 서성환 회장님이셨습니다. 할머니로부터 시작된 나눔 정신이 서성환 회장님에게 이어졌고, 2003년 회장님의 유산은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되어 아름다운세상기금으로 탄생하였습니다. 2004년 첫 번째 희망가게가 빛을 보았고, 좋은 일에 뜻을 지닌 분들의 노력과 행운이 깃들여 지난 6월 희망가게가 100호점 오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년간 100개의 희망가게 오픈이라는 건전한 성장과 더불어 창업주 어머니들이 진정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희망가게가 계속해서 희망을 나누는 선순환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좋은 뜻과 열정이 세상으로 더 넓게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희망가게 어머님들이 오늘의 삶을 통해 내일의 꿈을 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세상기금의 출연자인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대표이사의 글 중에서

story 3

아이들의 잠재력에 투자하는

연금술사기금

기부=투자

"기부는 몰래, 알아서 하는 것, 저는 이게 안타까워요. 저의 기부 목표는 사회구조의 비어있는 부분을 지원해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돈만 기부하고 잘 써 달라고 하는 것은 체질적으로 안 맞아요. 잠재적 역량을 지녔지만 사회가 무관심했던 청소년을 발굴해 쓸모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기부고 나눔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연금술사기금'을 출연한 권혁일 기부자(해피빈재단 대표)의 말이다. '연금술사 프로젝트'는 기부를 통해 보호시설에서 나온 청소년들이 회사를 차려 자립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과감하게 '학교'라는 틀에서 벗어나 '먹고살기'의 절실한 문제를 어른과 청소년이 '의기투합' 하여 좌충우돌 해결해 나가는 '연금술사 프로젝트'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담담하게 자기 앞가림을 하고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맞춤형 진로교육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기(13명)에 이어 2기(25명)들이 '청년활력도시락 소풍가는 고양이'라는 이름으로 도시락 매장을 직

접 운영하고 있으며 이 회사가 순익까지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의 세 기금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기부문화의 변화를 느꼈다면 앞으로는 어떠한 키워드와 나눔의 방식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아름다운재단은 이 세 기금 뿐 아니라 수많은 기금들이 조성되고 사회공익을 위해 쓰여지는 것을 보아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과 함께 다양화할 한국사회의 10년, 20년 후의 더 확장된 기부문화를 기대해본다.

예종석 교수가 말하는 기부의 역사

예종석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기부의 역사는 오래다. 길고 긴 기부의 역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통과 그 궤적을 같이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프랑스어로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귀족들은 신분에 따르는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릴 수 있었는데,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본래 그러한 특권을 향유하는 것에 상당하는 도덕적 임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용어이다.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

인 이야기’에서 로마제국의 2천 년 역사를 지탱해준 힘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철학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로마의 귀족은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스스로 전장의 선봉에 서서 용감하게 적과 싸웠다고 한다. 초기 로마 사회에서는 사회 고위층의 공공봉사와 기부, 헌납 등의 전통이 강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면서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재임 중 국가가 어렵거나 재정이 부족할 때 개인재산으로 국고를 네 번이나 지원했다고 한다. 로마의 귀족들 또한 공공시설의 복구나 건축을 위해 개인재산을 희사하는 것은 다반사였으며 빈곤 퇴치나 차세대육성을 위



한 기부도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귀족층의 술선수범과 희생에 힘입어 로마는 고대 세계의 맹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런 사회지도층의 역할이 지성은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은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은 에트루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졌다던 로마인들로 하여금 커다란 문명권을 형성하고 무려 천년동안이나 강한 국가를 유지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자리 잡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통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 뿌리를 내렸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사회들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다. 최근 과도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에 시달리는 프랑스와 벨기에, 독일의 부호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라고 정치권에 촉구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전통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유럽에서 시작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통은 신흥국가인 미국으로 건너와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처음부터 봉건적 계급제도 없이 만인이 평등한 민주국가로 시작한 미국에는 유럽과 같은 귀족계급이 없었다. 따라서 미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특정계급인 귀족의 책무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책무로 형성되었다. 또 미국에서 찬란한 자본주의의 역사가 꽃을 피우게 되면서 귀족의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기업가들이 들어서게 된다. 미국 기부문화의 시발점에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있다. 카네기는 65세가 되던 1900년 “부자인 채 죽는 것은 정말 부

끄러운 일”이라며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던 자신의 철강회사를 5억 달러에 처분한다. 그리고 그 때부터 그 막대한 자금으로 자선활동을 시작하여 여생을 ‘위대한 기부자’로 보내게 된다. 미국에는 카네기 이후 록펠러(3억 5천만 달러, 1913년), 포드(5억 달러, 1936년) 등이 부의 사회 환원을 위해 재단을 설립했고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테드 터너 등에 의해 면면히 계승되어 현재는 5만 6천여 개의 재단이 활동 중에 있다. 미국의 부자들은 막대한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 경쟁적이다. 세계최고의 부호이며 최대의 기부자인 빌 게이츠는 “부의 사회 환원은 부자의 의무”라고 말한다. 미국 부자들의 이러한 선행은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 이제 미국인들은 기부를 생활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체 미국인들의 98%가 어떤 형태로든지 기부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액기부자들의 기부가 총 기부액의 77%에 이르고 있다는 최근의 통계가 그러한 사실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카네기 이후 한 세기동안 면면히 이어져온 기부의 전통이 부자들의 미덕이자 미국의 힘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미국의 부자들은 이러한 나눔을 통해 과거 유럽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를 미국 사회에 새로운 형태로 정착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부시 정부가 추진한 바 있는 상속세 폐지 시도에 대해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데이비드 록펠러 같은 거부들이 “상속세 폐지는 혐오스러운 일”이고 “유산보다는 능력에 의해 성공할 수 있

이제 우리도 눈을 조금 크게 뜨고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기부는 정부의 개입 영역이 아니거나
 정부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여한다.
 또 자선적 기부는 사회의 균형 발전을 가능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책임 있는 부자’라는 단체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기부의 진정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문화는 미국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기부의 역사는 면면히 흐르고 있다. 우리 민족의 수난의 역사 곳곳에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신의 안위를 생각지 않고 온몸을 던져 나라를 구한 훌륭한 선조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들의 애국심과 의기는 니체가 ‘도덕의 계보’에서 설명하는 서구 노블레스들의 강력한 도덕적 권위의 원천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근대사에서만도 그런 인물들은 쉽게 만날 수 있다. 우선 사회에 공헌하는 부자의 전범으로 경주 최부자 가문을 꼽을 수 있다. 경주 최부자 가문은 무려 10대, 300년에 걸쳐 만석꾼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수 없이 많은 선행과 독립운동의 후원자 역할을 통하여 부자로서는 드물게 존경과 칭송을 받는 집안이다. 최부자 집안은 권력을 멀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였으며,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고, 검소하게 살며 자선을 베풀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항

일운동과 교육 사업에 전 재산을 바치는 것으로 지나긴 부의 세습을 마무리했다. 최부자 집안이 칭송을 받는 것은 부를 많이 축적했고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자선 활동과 사회공헌으로 지도층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다. 최부자 가문의 모범은 한 두 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집안의 전통으로 전해내려 온다는 점에서 음미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우당(友堂) 이회영(李會榮) 일가 역시 우리나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역사를 논하는 데 있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집안이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이회영과 그의 형제들은 만주에 무력항쟁 기지를 설립할 구상을 하고 전 재산을 처분한 뒤 1910년 12월의 추운 겨울날 60명에 달하는 대가족을 이끌고 만주로 떠났다. 그때 처분한 재산이 사료에 따라 조금씩 추정치가 다르나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600억 원에 이르는 거금이었다고 전해진다. 그때 만주로 간 우당 6형제는 그 자금으로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 양성의 중추기관으로 성장시켰다. 우당의 6형제 중 훗날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을 제외한 5명이 끝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조국의 해방도 보지 못한 채 옥사하거나 고문후유증, 굶주림으로 타국 땅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명문가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전 재산을 헌납하며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이회영 일가의 일화는 사회적, 도덕적 책무를 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귀감이 아닐 수 없다. 기업인으로서 귀감이 되는 인물은 유일한이 우뚝하다. 유일한 만큼 인생의 편차가 큰 인물도 없을 것이

다. 그는 한 세기 전 불과 10세의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 고학생에서 경영자로 성장하였고, 독립운동을 지원했으며 고국에 돌아와 민족기업을 일으키고는 항일투쟁을 위해 미 육군 전략정보처(OSS)의 특수요원으로 변신하였다. 해방 후에는 다시 기업을 키운 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세상을 떠난 인물이다. 그는 독립운동가로, 참된 기업가이자 기부문화의 선구자로 우리의 근대와 현대를 잇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자라 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 그에게 기업은 목적이 아니라 나눔을 위한 수단이었다.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이다. 단지 그 관리를 개인이 할 뿐이다”는 그의 어록에서 남다른 기업관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우리 사회에는 과거에 존재했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이 나눔의 철학으로 승화되어 계승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본주의의 역사가 짧기 때문이라거나 가족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고 치부하고 있기엔 우리 사회의 삶의 질 양극화현상은 너무나 심화되고 있고 기부문화의 토양은 척박하기만 하다. 근자에 와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우리사회의 기부주역은 김밥할머니, 샷바느질할머니라는 사실이 그러한 현실을 웅변으로 말해준다. 아직도 우리의 기부현실은 개인기부보다 기업의 기부가 많고 그 기업기부의 상당부분은 준조세적 성격의 비자발적 기부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게다가 우리 기업가들의 기부는 아직도 많은 경우 회사의 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처럼 개인의 재산을 자선사업에 쾌척하는 경우는 드물다. 비중이 낮은 개인 기부조차 여전히 일부 계층에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회성이고 충동적인 기부에 그치고 있다.

이제 우리도 눈을 조금 크게 뜨고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기부는 정부의 개입 영역이 아니거나 정부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여한다. 또 자선적 기부는 사회의 균형 발전을 가능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우리 사회에 건강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자선적 기부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의 기부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우리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을 조금씩 소외된 이웃과 나눌 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전한 기부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 기부문화가 우리사회를 움직이는 시대정신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가 기업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일회성 기부에서 정기기부로, 비자발적 기부에서 자발적 기부로, 다액소수의 기부에서 소액다수의 기부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사회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의 대표적인 기업인들이 개인재산을 쾌척하기 시작하고 중산층들이 기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풍조는 대단히 희망적인 조짐이 아닐 수 없다.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보는 한국 기업사회공헌의 지형도

이현승

아름다운가게 사회공헌커뮤니케이션팀

기업사회공헌의 배경과 발전

최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사회공헌 활동 적극성에 따라 기업선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거기에 더해 소비자들은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기업 시민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기업을 지지하고 이러한 기업들의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이며 사회적 책임 활동이 미비한 기업에게는 강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도 하고 불매 운동까지도 앞장 선다. 그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그 일환인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좋은 기업의 요건으로 재무적 성과, 혁신능력과 함께 사회적 책임활동이 꼽히며,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사회와 함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기까지 하다.

200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양적, 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여왔다. 기업 경영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들이 해외 현지화를 위한 전략으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의지도 만만치 않아 적극적으로 전개될 추세이다. 또한,

2009년 전경련의 주요 기업의 사회공헌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담부서 설치 및 예산제도 도입, 경영방침에 의 명문화 등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업 내부시스템의 정비가 완료 단계에 이르렀으며, 지원 방식도 '단순 기부'에서 기업이 가진 역량과 사회적 요구를 연계시켜 시너지를 창출하는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으로 진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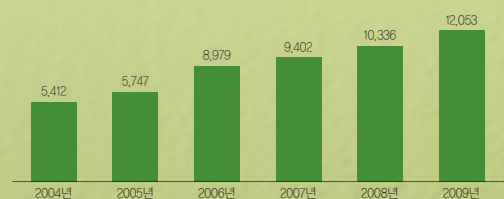
기업 총 사회공헌 지출액 규모추이 [2009년 전경련]

단위 : 백만원



기업 평균 사회공헌 지출액 규모추이 [2009년 전경련]

단위 : 백만원



기업사회공헌의 패러다임 변화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의 대두는 사회공헌활동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해외 선진 기업에서는 이미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하여 관점, 인식, 역할 및 행동의 전환이 진행중이다. 기업들이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공헌활동의 목표, 전략, 운영 방법, 사회공헌활동 조직의 성격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사회공헌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라 기업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필수' 경영활동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과거 시혜적 성격의 '비용'으로 인식되었던 사회공헌은 이제는 사회와 기업 가치를 동반 제고하는 '투자'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공급자' 관점에서 제공되었던 사회공헌이 '수혜자' 니즈를 파악한 맞춤형으로 진화하고있는 것이다.

아름다운가게 파트너들의 전략적기업 사회공헌 활동 사례

아름다운가게는 2002년부터 '아름다운토요일'이라는 사회공헌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임직원들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회사 내에서 모아 기증한 후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일일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이벤트성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02년~2007년만해도 아름다운토요일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단일 기업 행사나 전체 그룹사 행사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2008년 이후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변화로 인해 단순 후원 및 협찬, 단발적인 이벤트 형식의 행사에 대한 관심이 소원해지고 지양하는 추세가 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기업 중 기업의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외부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몇 가지를 소개한다.

사회공헌 패러다임 변화



제일모직과 함께 하는 '크는 나무' 환경교육 공모사업

제일모직은 아름다운가게와 2006년부터 '나눔이 만드는 희망세상'이라는 기증기부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제일모직은 창립기념일 행사를 대신해서 자선바자회 행사를 진행하는데 자사물품과 임직원 기증 물품의 판매수익금으로 저소득 아동 환경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일모직이 의류회사로만 인식되어 있지만 사실은 매우 큰 화학회사이기도 한데, 그렇다 보니 환경에 대한 이슈를 살린 전략적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지역아동복지기관을 통해 어린이들의 환경감수성과 생태적 상상력 증대를 위한 환경체험 교실, 자연정화활동, 친환경 만들기 교실 등 다채로운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풀무원과 함께 하는 결식아동 지원사업

풀무원은 바른마음경영을 선포하고 바른 먹거리 확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식품회사로서 당연히 추구해야 할 소비자의 건강, 식재료와 생산 과정의 깨끗함과 신선함이 기업 이미지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풀무원은 어린이들의 바른 먹거리를 위해 다양한 제품군 중 어린이를 위한 '우리아이' 제품군을 운영하고 있다. 아름다운가게는 풀무원 우리아이 제품이 '어

린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아이들이 주로 먹는 간식 거리라는 것을 감안하여 판매수익금 일부를 지역아동센터 간식비로 지원하고, 여기에 1,000만원 기금전달과 약 2,000만원에 해당하는 우리아이 제품을 현물로 배분하는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공익성 있는 마케팅연계를 통해 소비자층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들이 매우 활성화 되고 있다.

화승과 함께 하는 저소득 아동 체육교육 지원 사업

화승은 신발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패션사업을 펼치고 있는 53년된 기업이다. 스포츠 신발 및 의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체육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진행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에 화승 기금 2,000만원으로 저소득층 체육교실 운영과 장애아동들이 좀더 편하게 움직이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아동복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승과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특징은 기금 지원 마련 방법의 다양화와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브랜드화라고 할 수 있다. 기금을 위해 기업, 직원모금, 현물기부, 고객포인트 기부까지 종합적인 기부프로그램이 진행 되었으며, '그린잇'이라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브랜드화되어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아름다운가게에서 진행되는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기업의 특성에 맞게 특화되었다는 점,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브랜드화 했다는 점, 기업과 NGO간의 업무역할에 대해 충분한 사전논의와 파트너십을 통해 수혜자들에게 배분이 되었다는 점이다.

기업사회공헌활동의 문제, 그리고 개선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즉흥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한 후유증으로 체증처럼 기부금의 쓰임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이 백화점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는 즉흥적 기부가 많기 때문이다. 매년 사회공헌 테마와 방향이 바뀌고 좀더 재미있고 이슈화 될만한 '꺼리'를 찾게 되는 사회공헌 활동은 지속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 진정성마저도 퇴색하게 된다. 기업 사정이 좋을 때 기획한 사회공헌 예산은 사정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감축 대상이 되는 것과 정부의 정책적인 압박에 대해 민감한 것 또한 고질적인 문제이며, 기업내부에서 임원 교체로 인해 기부대상이 바뀌는 것 역시 일관성 없는 사회공헌의 한 흐름이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기업의 장기적 전략과 맞아 떨어지는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인데 이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기에 기업이 존재하는 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자면 필수적인 것이 사회공헌 전문인력 확보이며, 기업 단독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보다는 배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하며, 기부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야말로 상생협력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신뢰를 얻는 지름길일 것이다.



평범한 일상이 변하는 마법 같은 순간

홍보캠페인팀

지극히 평범한 하루가 작은 결심 하나로
삶에 가치를 불어넣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려고 하니

집안 구석구석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너무 많다. 남에게 주어봤자 어디 가서 애물단지 취급이나 받을 것 같아 아파트에 재활용으로 내놓을까도 해보았지만 손때가 묻은 추억의 물건들이라 망설여진다. 정리해서 버리려고 하니 더 아깝기만 하다. 그러다가 아름다운가게를 알게 되었다. 기증을 하면 내 물건이 또 다른 주인을 찾게 될 것 같다. 기증된 물건을 팔아 어려운 사람도 돕는다고 하니 왠지 별일 아닌데 뿌듯해진다. 앞으로 왠지 자주 아름다운가게를 찾을 것 같다.

인터넷에서 티셔츠 한 벌을 사려고 하니

가격은 9900원. 싸다 싸다. 하나를 장바구니에 넣어 계산하려고 보니 옷장 속에 빼곡히 쌓여있는 옷들이 보인다.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사야 할까 망설이는 순간. 예전에 1만 원이던 베트남 소수민족 어린이들의 1년치 책값이라고 했던 얘기가 머리를 스쳐갔다. 티셔츠를 사느냐, 베트남 아이들을 돕느냐의 기로에서 과감히 나의 욕심과 즐거움을 버리고 온라인으로 매달 1만원 정기기부를 신청했다. 열두 벌의 티셔츠를 포기했지만 베트남 아이들에게 12년의 배움을 선물했다. 나 스스로가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다. 기특기특.

별다방에서 커피 한잔을 마시려고 하니

늘 익숙한 일인데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진다. 우연한 기회에 EBS에서 방영된 공정무역에 관한 이야기, 〈히말라야의 선물〉을 봐버렸기 때문이다. 노동력 착취가 가장 심한 것이 커피라고 한다. 우리는 별다방, 콩다방을 찾아 다니며 커피를 마시지만 정작 농부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네팔 산골에서 힘들게 커피콩 재배를 하고 있는 가족의 눈을 보았다. 열심히 재배해서 커피가 팔린 만큼 제대로 커피 농가에 수익을 돌려주는 공정무역 때문에 자식들의 교육은 물론 삶의 질도 높아졌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희망을 얻었다고 한다. 이제부터 난 되도록 공정무역커피를 마실 것이다. 그것이 그들과 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행복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재능이 쓰고 있다고 생각하니

좀 아깝다. 사실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나는 종종 취미로 일러스트를 그린다. 전문 일러스트레이터는 아니지만 간간이 잡지나 웹사이트에서 일러스트 의뢰가 들어오면 회사 일보다 더 신나게 그림을 그린다. 그러다 친구가 비영리단체에서 재능기부라는 것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시간이 따로 없는 직장인들 중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귀가 솔깃해졌다. 옛날부터 봉사를 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난 바로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내 그림으로 누군가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내 재능은 하늘이 주신 거니깐 더욱 필요한 곳에 쓰고 싶다.

승용차를 끌고 마트에 가려고 하니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다.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이긴 하지만 승용차는 꼭 끌고 가야 한다. 이유인 즉슨 한번 가면 나도 모르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카트에 어마어마하게 물건을 담아버리기 때문이다. 일명 생필품 지름신이 내리는 거지. 그리고 구입한 물건을 집으로 실어 날라야 하기 때문에 승용차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유치원 다니는 딸이 사뭇 진지하게 말한다. "아빠! 선생님이 지금 지구가 울고 있대.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타면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북극곰이 막 운대. 나 이제부터 유치원 갈 때 자전거 타고 다닐래. 나 북극곰 없어지는 거 싫어." 이게 무슨 말이야. 순간 아이 앞에서 부끄러운 아빠가 되어버렸다. 그 뒤 우리 식구들은 장을 볼 때 가까운 시장에 걸어서 다닌다. 주말에는 자전거로 한강 산책을 한다. 덕분에 뱃살도 많이 들어갔다. 요즘 딸은 날 볼 때마다 엄지손가락을 든다. 덕분에 지구를 살리는 좋은 아빠가 되었다.

무도에 정재형이 입고 나왔던 티셔츠, 알고 보니

프랑스 브랜드 B사 제품으로 대략 가격은 45만원. 구멍 송송 뚫려 리폼한 줄 알았더니 그렇게 비싼 의류 브랜드일 줄이야. 너무 비싸다. 입이 떡 벌어진다. 멋 내려고 연예인 따라 했다가는 카드값에 허덕이다 신용불량자 되겠다. 미친 존재감 정형돈은 개화동에 가면 그런 티셔츠가 널렸다는데 개화동까지 갈 필요있나. 우리 집 근처 아름다운가게에 가면 진짜 멋스러운 빈티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는데. 매의 눈으로 잘 살피면 보물들이 많은데 사람들은 잘 모른다. 나만 아는 아지트로 남겨두고 싶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찾아오는지 요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속상하다. 보통 티셔츠 기본 가격은 3,500원에서 2만원까지고 구매할 금액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간다. 맘에 드는 물건도 저렴하게 구매하고 좋은 일도 하는 일석이조의 진정한 나만의 멋을 찾는 일이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을 따르려고 하니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자식들을 위해 한 평생을 헌신하다가 갑자기 찾아온 우울증을 극복하고자 뭐라도 해보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자원봉사. 어떤 곳인지는 몰랐지만 늘 주말에 전화를 드릴 때면 천사라고 불리는 분들의 이야기를 하며 이제야 살맛이 난다고 하셨다. 그리고 늘 입버릇처럼 남길 재산은 없어도 자원봉사하고 있는 아름다운가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돈이라도 기부하고 싶다고 하셨다. '아, 이게 진짜 어머니의 즐거움이었구나.'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는 어머니께서 몸담고 계신 그곳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다. 그렇게 삶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계실 무렵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어머니의 살아생전 유언대로 우리 식구들은 망설이지 않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작은 돈을 기부하였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귀한 것을 남기고 가셨다. 어머니가 보고 싶은 날이다.

아이의 돌잔치를 치르려고 하니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첫 생일상 치고는 너무 비싸다.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번 돌잔치를 할 때 평균비용이 약 300~500만원선. 이게 과연 잘하는 일인가 생각했다. 아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어른들을 위한 잔치인 것 같아 마음이 조금 씁쓸했다. 양가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남편과 함께 우리 아이만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돌잔치를 생략하고 간소하게 잔치만 하였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으로 돌잔치 금액을 기부했다. 우리 부부는 이것이 아이를 위한 더욱 뜻 깊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화려함 보다는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알을 깨는 기부의 패러다임

김선우

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





구순의 에미는
세 마리 닭이 낳은 알을 꾸러미 꾸러미 모아
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귀한 알을 먹기에는 너무 아까워
어린 이웃에게 다시 그것을 보내고만
그 에미의 딸,

그네들이 낳은 알들이
지상의 한 끼 어둠의 껍질을 깨고
곳은 날을 털어내는 날개짓을 푸득푸득 달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딸보다 어머니가 많은 우리 동네 이야기입니다만)

- 유정란 김서누의 시 -

시골의 작은 동네의 저녁 식탁에서 들은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한 시입니다. 이 한편의 시와 같이 기부는 소외된 어린 이웃들을 생각하는 작지만 따뜻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부의 본질은 어떤 대가 없이 재화를 주는 것이지만, 그 수혜자들이 더 나은 처지로의 변화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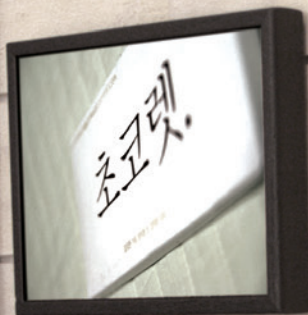
이제 병아리는 알 속에서 어둠의 껍질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어미 닭들은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알을 쪼아 주는 동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줄탁동시(岨啄同時)의 고사성어는 우리들에게 그런 뜻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기부를 통한 수혜자들에게는 부담 없는 가장 편안한 상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알을 깨고 나오려는 스스로의 힘과 밖에서의 알을 쪼아주는 힘이 함께 할 때 비상(飛上)의 날개를 달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난관의 껍질을 깨려하는 이웃들과 함께 합니다. 전국 120여 개에 이르는 가게의 대다수가 뜻을 모아주셨던 매장기증자, 법인,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으로 개설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소외된 이웃들이 알을 깨고 푸득이는 날개에 힘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활동천사님, 기부천사님, 그리고 구매천사님 ^^’

계속해서 가게 활동을 통하여 더 행복하시고 따뜻한 마음들이 번져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세상

서로 나누고 아끼는 따뜻한 세상
아름다운 우리 이웃과 세상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행복한 돈쓰기와 윤리적 소비

박종호

(주)에듀머니 총괄본부장

경제학의 기본 가정 중에 하나가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이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최대 효용을 이끌어낼 것이냐가 경제학에서의 최대 화두이다. 돈도 한정된 자원이다. 한정된 돈을 어떻게 나눠쓰느냐에 따라 같은 돈을 쓰기도 소비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제대로 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나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써야 소비 만족도가 극대화 된다. 그런데 요즘은 여기저기서 소비를 부추긴다. 이전에는 기업들이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이 부족하지는 않다. 기업들은 사람들의 새로운 욕구를 창출해야 물건을 계속 만들어서 팔 수가 있다. 사람들은 광고나 드라마 등의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욕구를 자극받게 된다. 제대로 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그 때 그 때 욕구의 자극을 받아서 소비를 하다보니 돈은 돈대로 쓰고도 소비 만족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계속해서 소비를 늘려가다보니 돈은 늘 부족하게 느껴진다. 이전에는 베란다에 다용도실 하나 있으면 수납공간이 충분했지만 이제는

방 하나를 창고로 쓰는 집이 많다. 가족의 수가 줄어서 대량소비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장바구니 소비는 끝도 없이 늘어간다.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대형마트의 이용으로 어느덧 욕실에는 1년치 치약과 칫솔을 두고 살고 있고 주방에는 늘 리필용 세제가 있고 시계 건전지는 늘 묶음으로 산다. 그럼에도 정작 시계 건전지가 다 닳아서 갈아 끼우려고 보면 묶음으로 산 건전지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다시 사야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시장 자원에 맡겨놓으면 알아서 최대효용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하지만 인간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이성에 의해 합리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리는 동조현상 때문에 드라마에 잠깐 등장했던 책이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엄마 우리집은?' 이 한마디에 정수기에서 얼음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돼버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의 기능도 다 활용하지 않는데 스마트폰 열풍에 의해서 새로운 핸드폰을 장만한다. 어느덧 옷도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다. 내가 정말 필요해서 구입한다면 모르겠지만 자신 스스로는 정수기에서 얼음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옷을 냉장고에 보관해야겠다는 생각도 한 적이 없다. 대형마트만 가면 과소비를 하지 않으려고 필요한 물건의 목록을 적어서 가더라도 집에 와서 보면 생각지도 못 한 물건들이 술술 나온다. 1+1 두부와 만두, 반 값 할인, 오늘의 기획상품, 한정세일 상품 등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필요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싸게 파는데 안 사면 손



아름다운가게 독섬나눔장터에서 어린이 판매자가 자신의 물건을 팔고있다.

해본다는 생각이 물건을 집어들게 만든다. 오리콤 브랜드전략 연구소에서 작년 11월 발표한 '소통의 네비게이션, 뉴로마케팅'이라는 보고서에는 뇌과학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의 무의식에 침투하는 뉴로마케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대형마트 역시 이런 뉴로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동선과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대형마트의 주력제품들이 진열 된다고 한다. 눈높이에는 마진이 높은 제품들을 진열하고 초특가 표시는 빨간색으로 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고정시킨다고 한다. 세일 등의 단순한 문구보다는 “한정 판매”, “오늘만 이 가격”, “1+1” 등의 조건을 달아서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고 주부들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느린템포의 음악을 틀어서 쇼핑을 느긋하게 즐기도록 한다. 대형마트는 이렇듯 우리 무의식에 대고 소비를 호소한다. 즉 대형마트에서 오는 지름신은 무의식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편리하다고 해서 이용하는 마트이지만 마트의 이런 편리함이 사실은 나를 위한 편리함이라기보다는 나의 무의식을 조종하기 위한, 지갑을 향한 편리함이었던 것이다.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합리적인 이성보다는 비합리적인 감정의 부분이 생각보다 크게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사고를 통해서 감정충추를 다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이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나 자신이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버려야 한다. 대형마트에는 소비 의사결정을 충분히 방해하고도 남을만한 마케팅 장치들이 가득하다. 뇌과학까지 물건을 판매하는데 응용되고 있는 현실이다보니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의 욕구를 제대로 들여다 보고 욕구와 필요에 대한 섬세한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불편한 소비구조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소비의 환경과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수년 전부터 윤리적 소비가 화두가 되고 있다. 소위 착한소비라고도 불리는 윤리적 소비는 소비가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와 환경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비하는 것을 일컫는다. 윤리적 소비는 친환경 소비 뿐만 아니라 생산자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공정무역, 로컬푸드 구매, 공정여행 등을 포함한다. 윤리적 소비가 좋다는 것은 알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 아무래도 윤리적 소비하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한 몫한다. 대형마트에 가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를 끊고 재래시장이나 동네슈퍼를 이용하자는 것은 단지 지역상권을 보호한다는 사회적 가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개인의 실질적 소비라는 측면에서도 이념적 소비는 그 의미가 크다. 가장 큰 의미는 미끼전략에 속지 않음으로 불필요한 소비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소비의 질을 지속적으로 보호해 줄 안전망이다. 적어도 불편한 재래시장에서는 손해 볼까봐 두려워 충동구매 해버리는 오류는 범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논쟁이 한참 불거질 때 한 대형마트 사장이 소비도 이념적으로 하냐고 반문했지만 소비는 이념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윤리적 소비는 사회적 가치를 떠나 나 자신의 소비만족도를 높이고 가게 부를 풍성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마을에서 희망을 찾다

유호근
희망동네 사무국장

언제부터인가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을'이란 참 낯선 단어가 되었다.
'이웃'이란 단어 역시 마찬가지다.
몇 해 전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 두 명이
옥상에서 서로 '누구냐?'고 다투다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는 황당한 기사에 씁쓸하면서도
어쩌면 이것이 나 자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 나부터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으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고
현대인 대부분은 군중속의 외로움에 몸부림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자살률은 세계 최고를 달리고 행복지수는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1 우리동작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유호근 씨
2 희망동네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2004년 3월,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이하 희망동네)>는 출발했다.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그 속에서 역시 행복하지 못한 나 자신을 바꾸고 싶었다.

인간의 행복은 물질적 풍요만으로도, 정신적 풍요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다.

양자간의 균형이 가장 중요한데 특히 정신적 풍요에는 이웃, 친구, 친지 등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누군가로부터 지지받고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인정받고 있다는 감정은 안정감을 넘어 행복감과도 직결되는데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마을이다.

마을이 행복해져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진다. 이것이 희망동네의 출발점이었다.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

처음 만난 마을은 역시나 그리 녹록한 곳이 아니었다. 처음 활동을 시작한 동작구는 지역활동의 뿌리가 전혀 없었던 곳으로, 시작한 모든 일 하나하나가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다. 가끔은 ‘내가 마을을 바꾸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이 너무 허황된 건가?’하는 생각마저 들었지만 꿈을 포기하기에는 그 가치가 나 자신에게 너무 소중한 것 같다.

일단, 닥치는 대로 문을 두드렸다. 이는 사람이 있거나 괜찮은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단체건 개인이건 무조건 찾아갔다. “함께 마을을 신나게 바꿔보자!”, “함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보자!”라는 다소 생뚱맞은 제안을 하고 다녔다. 그



3 철거민 대책 위원회 여러분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

4 희망동네 간사님들이 일하시는 사무실 전경

5 공간을 원하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 항상 열려 있는 희망동네 마을까페

6 언제나 웃는 얼굴로 반겨주시는 마을까페 지기

러나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심지어 속없이 행동하는 나를 의심을 하기도 했다. 희망동네가 초창기 진행한 사업 중 하나가 2004년 당시 방송에서 철거문제로 종종 보도된 상도5동 철거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 동네 주민들이 “젊은 사람이 뭐 할 일이 없어서 동네에서 왔다갔다하냐?”고 의심 아닌 의심도 했었다고 한다.

대방동 임대아파트에 위치한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였다. 1,0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그 임대아파트 단지는 400여 세대가 장애인 가구로 취약계층 밀집지역이다. 당시 별달리 도움을 줄 힘이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종종 찾아가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이었다. 단체 회장님과 이야

기를 나누다 보면 마을 주민들이 오며 가며 ‘도대체 애는 누구야?’하는 표정으로 인상을 쓰며 지나가기 일쑤였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자주 찾아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던 그들도 한번, 두 번 방문이 이어지다보니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었다. 이제는 “유호근 씨가 하지는 건 일단 무조건하고 본다.(철거민 단체 회원)”,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유호근 국장은 믿어도 된다.(장애인단체 60대 회원)”라고 말해준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장애인, 철거민이, 아이들이, 여성이 어 느덧 희망동네의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나와 희망동네가 마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되고 있다.



1 희망동네 사무실
2 희망동네 응원 메시지

희망동네의 사업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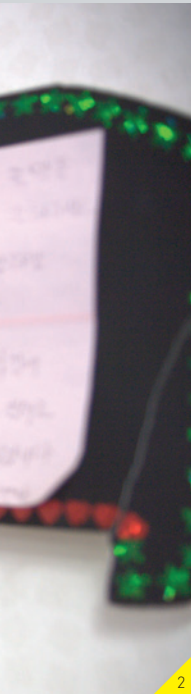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희망동네의 사업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한다. 이 무슨 ‘허경영’ 같은 소리인가 싶겠지만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려면 길게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당장의 성과에 급급하면 안 된다. 또한 인내와 끈기가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

희망동네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세부 기획은 사무국이 진행하지만 지역주민의 목소리로부터 출발한다. 물론 주민들로부터 목소리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니다. 주민의 요구가 접수되면 그 부분에 대해 미리 자료를 검토하고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안에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아주 가볍게 제안한다.

희망동네가 사업을 추진하는 대강의 프로세스는 이러하다. 누군가가 말한다. “마을에 어린이도서관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그러면

사무국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 검토결과 그 사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주변사람들을 짚어본다.

“진짜 어린이도서관은 필요한 거 같아요. 그죠?”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대부분 관심을 표하면서도 본인이 나서기는 힘들다는 반응이 온다. 상관없다. 1년간 수시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시 제안한다. 물론 같은 사람일수도 다른 사람일수도 있다. 2, 3년이 지나도 상관없다. 관심이 있고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비로소 그것에 관심이 있고 참여의 의지가 나타나면 그 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결과도 마찬가지다. 1년이 걸려도, 2년이 걸려도, 아니 10년이 걸려도 상관없다.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참여했으니 꾸준히 해나가면 된다. 그리고 꾸준히 하다보면 대부분의 일은 현실이 된다.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되면 희망동네의 사업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 다만 진행중일뿐이다.



그렇게 〈동작주민페스티벌〉을 만들었고, 〈동작구 지역단체협의회〉를 만들었다. 〈동작구공부방협의회〉, 독거노인 도배봉사소모임 〈희망의집〉을 만들었다. 〈동작구 의정감시단〉을 5년째 운영하고 있고, 공익학원 〈반올림〉을 만들었다. 2010년 상도4동 첫 번째 어린이도서관인 〈성대골어린이도서관〉을 개관했고, 올해에는 대방동에 〈해맑은어린이도서관〉이 문을 연다.

또한 협동조합 희망가게 〈마을카페 사이시옷〉과 〈성대골별난공작소〉도 운영중이다. 그것도 지금 나열한 사업들은 과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다.

누군가는 묻는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업을 동시에 하느냐?”고. 나는 답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거다. 나는 공간만 확보해 준다. 마을의 힘은 생각보다 대단하다. 마을을 믿어야 한다.”라고.

최근 “요즘 동작구가 재미있어진다.”거나 “우리 동네에 관심이 생기고 있다.”라는 말을 가끔 들으면 나는 무척 행복하고 신이 난다. 마을이 행복해지면 서 나 역시 행복해지고 있다.

아직도 외로운 사람들

이러한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희망동네〉와 내가 지역사회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고 있을까? 〈성대골어린이도서관〉에 참여한 한 주부의 이야기는 내게 새로운 자극과 반성이 되었다.

“상도동에 나 혼자인줄 알았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외롭구나!’하는 자각은 새로운 고민을 던져주었다. 그리고 여전히 답은 마을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희망동네가 추구해온 방향, 사업으로 담지 못하는 더 많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그릇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 또한 이들이 서로 대화하고 어울릴 수 있는 ‘따로 또 같이’형 교류도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어울리고 놀면서 비로소 이웃과 마을에 대한 애정이 생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희망동네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될 것이다. 〈희망동네〉가 이 세상 사람들의 외로움을 없애줄 수는 없어도 적어도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더는 데 기여할 것 만큼은 확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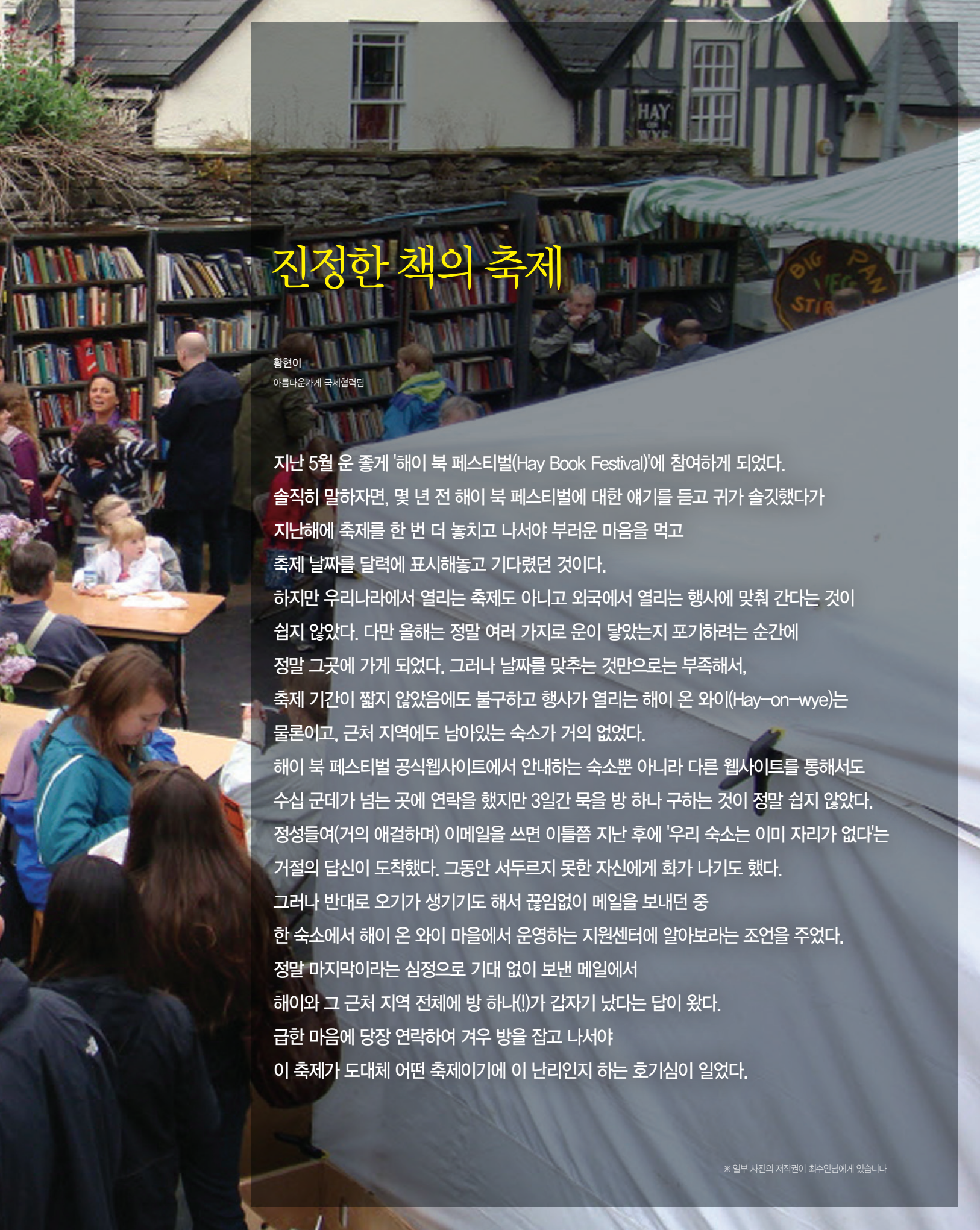
정치 하실거죠?

글을 마치기에 앞서 에피소드 하나. 요즘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질문은 “그러니까 나중에 정치할거죠?”라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이다. 어쩌다 한번 듣는 이야기면 그냥 넘기겠는데 너무 자주 듣고 있다. 젊은 사람이 별다른 대가 없이 지역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데 생소한 일이라니 싶으면서도 그 질문에서 “절대 정치는 하지 말아 달라”와 “기왕이면 정치해서 더 잘 해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느끼고 있다.

미래를 장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확언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런 질문에 나는 종종 이렇게 답한다.

“나는 정치인보다 위에 있는 주민을 할 거다. 왜냐고 한 단계 낮아지라고 하는 건가? 그냥 상징적으로 정치인보다 높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각하고, 깨어있고, 조직되어 있어서 정치인이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마을공동체 안의 주민으로 살고 싶다.”라고 말이다. 그것이 정치보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나의 꿈’이라고 말이다.





진정한 책의 축제

황현이
아름다운가게 국제협력팀

지난 5월 운 좋게 '해이 북 페스티벌(Hay Book Festival)'에 참여하게 되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몇 년 전 해이 북 페스티벌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귀가 솔깃했다가
지난해에 축제를 한 번 더 놓치고 나서야 부러운 마음을 먹고

축제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놓고 기다렸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축제도 아니고 외국에서 열리는 행사에 맞춰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다만 올해는 정말 여러 가지로 운이 닿았는지 포기하려는 순간에

정말 그곳에 가게 되었다. 그러나 날짜를 맞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축제 기간이 짧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열리는 해이 온 와이(Hay-on-woy)는
물론이고, 근처 지역에도 남아있는 숙소가 거의 없었다.

해이 북 페스티벌 공식웹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숙소뿐 아니라 다른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수십 군데가 넘는 곳에 연락을 했지만 3일간 묵을 방 하나 구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다.

정성들여(거의 애걸하며) 이메일을 쓰면 이틀쯤 지난 후에 '우리 숙소는 이미 자리가 없다'는
거절의 답신이 도착했다. 그동안 서두르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로 오기가 생기기도 해서 끊임없이 메일을 보내던 중

한 숙소에서 해이 온 와이 마을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에 알아보라는 조언을 주었다.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기대 없이 보낸 메일에서

해이와 그 근처 지역 전체에 방 하나(!)가 갑자기 났다는 답이 왔다.

급한 마음에 당장 연락하여 겨우 방을 잡고 나서야

이 축제가 도대체 어떤 축제이기에 이 난리인지 하는 호기심이 일었다.



전 세계 출판인들의 축제라고 불리는 <독일 푸랑크 푸르트 국제 도서전>이 출판 산업을 움직이는 대규모 행사인 것에 반해, <해이 북 페스티벌>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면서도 시골마을에서 마을사람들이 주최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돈벌이가 되지 않는 데도 전 세계의 책벌레(책 수집상이나 애호가와는 다른)들이 모이는 책 축제인 것이다.

사실 축제가 열리는 해이 온 와이 마을은 런던에서 기차로 서너 시간을 달려야 하는 웨일스의 구석 시골마을이다. 그나마 급행 기차나 버스도 없고, 우리로 치면 읍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헤리포드(Hereford)'역에서 행사 특별버스를 타야 한다. 이 버스도 하루에 서너 번밖에 운행하지 않는다. 이 버스로 한 시간은 죽히 달려야 겨우 해이 온 와이 마을에 도착하게 된다.

이렇게 작은 마을인 해이 온 와이는, 그러나 이제 전 세계에 '책마을'의 모범으로 불리며, 진정한 책축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손꼽히는 '문화와 지역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 권

텐츠가 되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힘이 무엇일까?

천신만고 끝에 잡은 숙소는 그나마도 역에서 자동차로 삼십분 이상 떨어진 매우 후미진 시골마을의 오래된 농가(Barn)를 개조한 곳이었다.

친절한 아저씨가 자신의 승용차로 읍내까지 미중을 나와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들판과 멀리 보이는 블랙 마운틴을 배경으로 한참 달리자, 화려하진 않지만 주인의 정성이 한껏 느껴지는 작은 농가가 나타났다. 이 농가의 주인인 '애니'와 '롭' 뿐 아니라 이 지역의 주민들은 이 축제기간에만 민박집을 운영한다고 했다. 축제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 때문에 자신이 쓰던 방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집의 모든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옆방에 머물던 런던에서 온 가족. 아랫방에는 10년째 한해도 빠지지 않고 페스티벌에 참석한다는 은발의 덴마크 할머니 '한나'. 주인인 '애니'와 '롭' 역시 축제 브로셔를 벽에 붙여 놓고 매일 2~3개씩 스케줄을 짜가며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이들 모두 한국 사람들



만난 것은 처음이라며 우리에게 어떤 작가를 좋아하고, 어떤 세션을 들으러 갈 것인지 궁금해 하기도 했다.(요즘 세상에 한국인을 처음 만나는 곳이 있다니!)

1987년 시작된 <해이 북 페스티벌>에는 매년 영국의 유명 작가들이 방문한다. 그리고 해외의 유명 작가들이나 영화제작자들, 또 코미디언들과 음악가들, 심지어 정치인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책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세션을 개최하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책으로 하나가 되는 분위기에 흠뻑 취해 돌아간다.

장르도 다양해서 문학, 역사, 철학, 경제, 환경, 정치와 언론뿐만 아니라 종교, 청소년, 아동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장르의 도서와 작가가 참여한다. 평소 거액을 제안해도 모시기 힘든 세계적 작가들도 이 축제만큼은 흔쾌히 참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다른 어떤 책축제 보다는 독자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에 적극적이라고 한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한국의 신경숙 작가와 장하준 교수가 초청되어, 우리의 어깨를 으쓱하게 해주었다. 신경숙 작가는 ‘엄마를 부탁해’로, 장하준 교수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로 소개되었다.

축제가 진행되는 열흘간 사람들은 호텔, B&B, 민박, 심지어 텐트촌에서 지내며 매일 아침 해이 온 와이에 마련된 축제 부스로 향한다. 축제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80대의 노인부터 서너 살 꼬마까지 말 그대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모든 연령층이며, 옷차림은 제각각이지만 누구나 책을 옆구리에 끼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사람들은 행사장에 준비된 작가와의 시간, 책 전시부스 및 옥스팜 헌책방과 각종 이벤트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올해는 특히 행사장을 마련할 때 다양한 친환경적인 시도를 통해 단순히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해이에서 머무는 2박 3일간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책을 좋아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책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놀고 느끼고 즐기는 모든 활동들이 너무나 즐거웠다. 그러나 즐거웠던 만큼 ‘우리에게도 책이라는 테마로 모여서 문화를 나누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 우리도 우리의 개성을 살린 우리만의 축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해이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것이 분명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간 각 지자체마다 만들기에만 급급했던 비슷비슷한 축제에서 벗어나, 시민의 힘으로 우리만의 문화와 개성을 듬뿍 담아내는 좋은 축제가 탄생하기를 열망해본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디자인을 꿈꾸다

이윤자
프리랜서 방송작가

초록 별 지구에 빨간 불이 켜졌다.
올 여름 대한민국은 이상기후로 인한 몸살을 앓았고
지구의 아픔을 몸소 체험하며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와 환경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친환경 제품, 친환경 패션 등 국제적인 에코열풍이
시작됐으며 이는 국내 디자인계에도 영향 주고 있다.
너도나도 친환경을 목소리 높여 외치는 이때에
사람과 자연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꿈꾸는
그린디자이너 이명우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한 차례의 태풍과 폭우가 지나고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던 8월의 여름 날, 화려했던 그날도 초
라하지도 않은 소박한 옷차림의 한 남자를 만났
다. 그가 바로 서툰한 살 그린디자이너 이명우다.
다소 생소한 그린디자이너, 그린디자이너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우리를 위해 그는 그린디자인에 대한
그의 생각을 이야기해주었다.

“그린디자인은 환경과 사람 모두에게 이로운 디
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동안 사람들의 욕구에만
충실한 디자인이 많았고 환경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잖아요. 잘못된 과거가 있다면 반성하고, 새
로운 방향을 설정하려는 움직임인 것이죠, 인간
과 자연이 지속하고 공존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하
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그린디자인이에요.”

그가 만난 디자인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것이 좋아 화가가 되
고싶었지만, 고3 입시미술학원에서 원장선생님
의 권유로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게 되었
고 그래픽디자이너를 꿈꾸게 되었다. 그러던 그는
대학 3학년 때 <월든> 이라는 책을 읽고 그 계기
로 그린디자이너로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대
학교 3학년 때 <월든> 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19세기 미국동부에 살았던 한 청년이 대학졸업 후
월든이라는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홀로 살아간
2년간의 기록이에요. 모험소설인 줄 알고 재미 삼
아 읽었는데, 환경과 문명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심어주더라고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책 한 권에 많은 영향을 받은
셈이에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아보

자 생각했어요. 디자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특정 기업이나 고객의 디자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부분적인 역할만이 아니라 보다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죠.”

그 뒤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월든으로 무작정 떠나보겠다고 마음먹었던 그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다. “새로운 생각을 하러 새로운 장소로 무작정 떠나고 싶어, 미국 동부의 '월든호수'로 목적지를 결정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며 준비했어요. 어느 날 월든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는데 유독 한국의 어떤 디자이너가 연관검색이 되는 거예요. 국민대학교에서 그린디자인을 가르치는 윤호섭 교수님이었죠. 그 당시 그린디자인이라는 이름에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디자인으로 환경문제를 다룬다는 점이 흥미로웠는데 매마침 대학로에서 '녹색 공감 교실'이라는 공개강연을 진행하고 계셨고, 한 달간 들으며 디자인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월든에 가겠다는 결심을 잠시 접고 그린디자인을 공부하게 되었답니다.”

이명우에게 〈월든〉과 그린디자인은 운명처럼 다가왔다.

이명우의 지속 가능한 그린디자인

그렇게 우연하지만 특별하게 시작된 그린디자이너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 그는 꾸준히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2009년 5월 그의 첫 개인전인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는 잃음으로써 얻는 것과 얻음으로써 잃는 것에 대한 주제로, 버려진 박스 위에 무표정한 동물들은 얼굴을 그림으로써 사람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무언가를 얻을 때 반대로 수많은 동물들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며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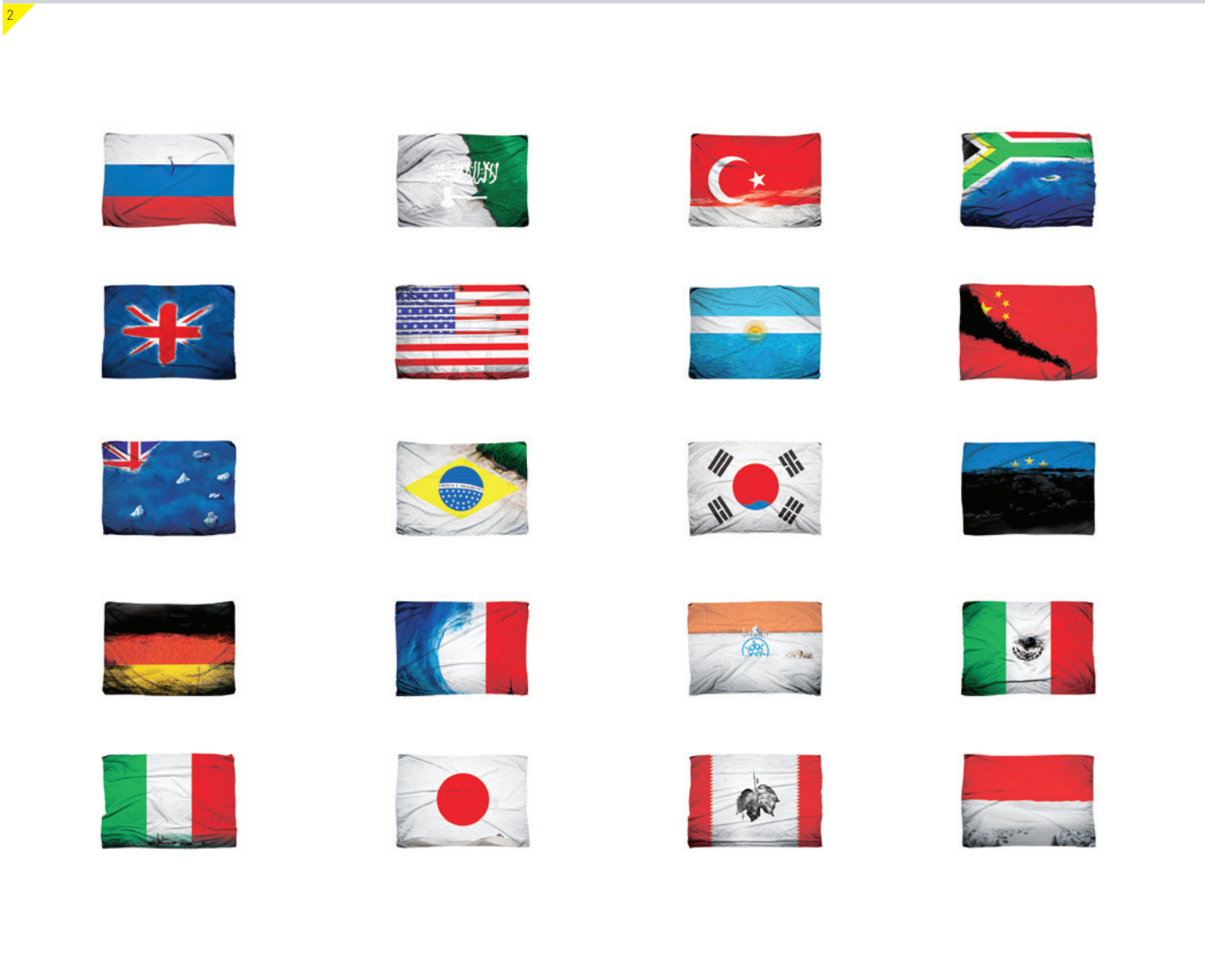
또한 CO2 배출량 상위국들의 국기를 이용해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결과를 이미지화한 〈지구 온난화 포스터 시리즈〉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더불어 지구온난화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 단지 몇몇 특정 국가만의 것으로 규정지을 수 없음을 표현했다.

그리고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작품 〈위터 드로잉 퍼포먼스〉는 땅이 젖으면 색이 짙어지는 현상을 이용한 드로잉 퍼포먼스다. 물고기 모양으로 구멍을 뚫어낸 박스 위에 물을 뿌리면 물에 젖은 땅이 물고기 모양으로 짙어





- 1 작품_드로잉퍼포먼스 과정
- 2 나라의 국기를 이용한 온난화포스터
- 3 이명우 그린다자이너





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증발하는 현상을 이용한 작업이다. 청계천변을 따라 상류로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 무리를 표현함으로 소리 없이 사라져가는 물, 생명, 자연의 소중함에 대한 생각을 전달한 작품이다.

“워터 드로잉 퍼포먼스는 <물>이라는 생명에 필수적인 요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연과 생명 문명의 지속 등 그 의미가 포괄적일 수 있어요. 또한 작업 전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이나 오염 등의 피해를 주지 않아 주제 정신에 잘 부합 되고요. 또한 길 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가와 다양한 사람들이 직접 교감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점이에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저의 생각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작품 하나하나마다 나름의 의미가 담겨있는 그의 작업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꾸준한 생각과 자신의 디자인 철학에 대한 깊은 사고의 결과물이었다.

이명우, 그가 꿈꾸는 디자인

하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디자인은 그린디자인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 “전 궁극적으로는 ‘굿 디자인’을 하고 싶어요. 굿 디자인에는 분명히 그린디자인이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을 생각하는 의식을 넘어 소박하지만 소중한 인정이 담겨 있었다. “저는 디지털만큼이나 아날로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 둘의 차이는 우열이 아니라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날로그는 다소 불편하고 번거로워서 대부분 멀리하지만, 그래서 제겐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같은 바느질도 손과 기계는 분명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계바느질이 빠르고 정확하다면 손바느질은 견고하고 제작자의 감정이 담겨요. 또 요즘에는 대부분의 소통을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하잖아요. 디지털 전달방식은 빠르고 즉각적이지만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목적이라면 손으로 쓴 편지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처럼 디지털이 만연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겠죠. 저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싶어요. 디자인된 물건이나 시스템에 사용자가 맞추어가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사용하는 과정까지 모두 디자인일 수 있는 것이요. 자신의 손때가 묻어서 닳고 닳아도 애뜻해지면, 다른 새 것보다도 이게 더 좋은, 못났어도 내 자식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버릴 수 없게 되는 그

런 마음이 생기는 디자인 말이에요.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구매하게 되지만 막상 사용해 보면 불편해서 내 것 같지 않은 물건들보다는, 단순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사용 할수록 자신 같아지고 편리해서 정이 드는 것이죠.”

그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디자인을 꿈꾸는 그린디자인을 하는 것이 보람 있고 기쁘다고 한다.

“그린디자인을 하면서 좋은 점 중 하나는, 개인의 물질적 보상 이외에도 공적인 부분의 가치도 다루게 되니 사람들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과 격려가주는 에너지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돈보다 사람의 마음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그의 고백에 진심이 담겨있었다. 그리고 자연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마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는 그의 소박하지만 진실된 마음이 대화를 통해 전해져 왔다.

단순해도 중요한 것을 잃지 않고 작은 것을 소중히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작아 보이지만 우리들을 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인 자연의 생명력을 닮아있었다. 그린디자이너 이명우, 그가 만들어갈 디자인을 통해 사람들이 조금 더 환경을 생각하고 친밀해지기를,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길 기대해본다.

도전하기 때문에 늘 새로운 사람

김태완

아름다운가게 사회공헌커뮤니케이션팀

막바지 더위가 쉬 물러나지 않을 기세로 도시를 뜨겁게 달구던 날,
여의도 KBS 방송국 로비에서 정세진 아나운서와 만났다.
저만치서 힘찬 걸음으로 다가오는 정세진 아나운서의 첫인상은 군더더기 없는 말끔함, 당당함,
그리고 정갈함 같은 단어들이었다.
키도 그리 크지 않고 인상이 강렬하지 않은데도
함께 있으면 만나는 순간부터 꼭 빠져들게 하는 어떤 힘이 그에게서 느껴졌다.
정세진 아나운서는 지난 2010년부터 아름다운가게의 홍보대사로 활동해오고 있다.
홍보대사와 활동가의 관계로 행사장이나 기념식장에서 만나곤 했던 정세진 아나운서를 만나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조금 설레었던 것 같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 혹시 분위기가 좀 어색해지는 건 아닌가, 이런저런 걱정도 했다.
미리 질문을 꼽아놓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정세진 아나운서를 마주하는 순간
그 질문들은 하얗게 지워졌다. 이야기 속으로 그냥 편안하게 빠져들어
시간이 지나는 줄도 모르게 되어 버렸다.
미리 만들어 놓은 질문이 아닌 마음과 마음으로 듣고 답하는 것.
인터뷰라기보다는 오랜만에 만난 선후배처럼, 이날의 만남은 그렇게 진행됐다.







※촬영 협조: 커피와 사람



아나운서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직업이다
정세진 아나운서는 지난 1997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15년간 아나운서로 살아오며 굴곡도 있
었고 주목과 사랑을 받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
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
로 여긴다. 당당했고 담담했다.

“많은 프로그램을 했어요. 9시뉴스도 했고, 어린
이 프로그램을 한 적도 있어요. 8시뉴스에서는 여
성 앵커 두 명이 진행하는 실험적인 포맷을 맡기
도 했죠. 요즘은 스포츠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8시 뉴스는 1년 반 정도 진행했죠. 생활 밀착형 뉴
스였는데, 9시뉴스가 좀 딱딱하잖아요, 대신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하는 형식이었죠. 지금은 그 뉴
스가 없어져서 좀 아쉬워요. 보통 방송국에서는
뉴스를 진행할 사람을 선정할 때 오디션을 열어
요. 당시에 미국에서 1년 정도 공부하고 돌아와
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던 때였는데, 그 전에
는 없던 새로운 시도가 좋게 다가와서 오디션을
봤죠. 아름다운가게가 100호점 매장을 개설했다
는 뉴스도 그때 8시뉴스에서 제가 진행했던 기억
이 나네요.”

지금이야 베테랑이라고 불릴 만하지만 실수도 해
보고 좌절도 해봤던 정세진 아나운서다. 가장 기
억에 남는 건 역시 초창기 시절이다.

“처음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맡으라고 했을 때는
정말 괴로웠어요. 프로그램이 나와 전혀 어울리
지 않고,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거든
요. 그래서 못 하겠다고 했더니, 신입 아나운서가
말이 많다고 편지를 들었죠. 녹화를 할 때마다 힘
들고 괴로워서 울기도 했는데, 그때 많은 것을 배
웠던 것 같아요. 정말 큰 실수를 했을 때는 입사 1
년 쯤 지났을 때였어요. 김영삼 대통령에서 김대
중 대통령으로 정부가 바뀔 때였는데, <김영삼 대
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라는 뉴스를 <김영삼
주재로 열린>이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는 나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실수를 한 건데, 정말
난리가 났어요. 항의전화가 쇄도하고 아주 난감했
죠. 그 다음날로 바로 교체됐어요. 혼자 화장실에
가서 울었는데, 그 때 위로를 해준 분이 이금희 선
배님이세요. 어깨를 토닥여주며 다 이렇게 배우는
거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이금희 아나운서는 방송국 선배이면서 아름다운

가게 홍보대사 선배이기도 하다. 평소 많이 믿고 의지하던 선배와의 인연이 남다르다. 결코 녹록한 일은 아니지만 그는 아나운서가 자신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참 좋은 직업이라고 말한다.

“요즘은 일요일 밤 12시에 하는 스포츠뉴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존의 스포츠 프로그램과는 좀 다른 포맷이죠. 역시 새로운 도전이라서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프로그램은 '우리 모두가 선수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요. 경기 결과만 전하는 게 아니라, 현장의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죠. 최근에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 현장인터뷰나 살아있는 현장 이야기를 전하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스포츠 선수들은 늘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예요.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매일 매일이 도전이잖아요. 어린 선수들도 많은데 그들을 지켜보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더군요.”

아나운서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흔한 직장인이 되어 있을 거라고 말한다.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아카데미를 다니며 공부를 했지만 첫 도전에서는 실패했다. 낙방을 하고서 나보다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놀랐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도전을 해서 아나운서가 됐다. 지금껏 이 일에 만족하고 또 감사함을 잊지 않으며 살고자 노력한다고 했다.

“요즘에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경쟁률이 높잖아요. 하지만 제가 시험을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또 제가 운이 좋기도

했구요. 보통은 1년에 5명 정도 뽑는데, 제가 시험을 봤을 때 12명을 선발했어요. KBS의 아나운서라는 사실이 참 좋아요. 처음에는 '판타지' 같은 것도 있었고, 9시뉴스를 진행하면서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지금에서야 왜 그랬나 싶지만 늘 긴장한 탓이었겠죠. 9시뉴스가 주는 압박감 같은 것도 작용을 했겠고. 하지만 이제 그 자리를 떠나고 나니 오히려 잘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같은 느낌이에요. 아나운서로 산다는 건 어떤 혜택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보통의 직장인 생활을 했다면 지금 내 삶의 방식에만 적응했을 텐데, 아나운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눈높이로 이야기하고, 넓은 시야를 갖게 되거든요. 정말 많은 공부를 하게 되죠.”

그는 아나운서의 인기라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인기보다는 아나운서로서 인정받기 위해, 뉴스를 더 잘 전할 수 있기 위해, KBS 아나운서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인생의 롤 모델은 딱히 없지만 'Inside edition'의 앵커인 데 보라 노빌의 지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좋아한다. 또한 박원순 변호사와 안철수 교수를 좋아하는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과감하게 뛰어들어 좋은 영향을 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기도 했다.

나누는 삶, 함께하는 삶

정세진 아나운서와 아름다운가게의 인연은 남다르다. 그의 어머니는 아름다운가게 신대방점 활동천사로 오래 활동하고 있다. 어머니에게 아름다운가



게를 소개해 준 것도 정세진 아나운서다.
 “그 때 어머니가 봉사를 해보고 싶어 하셨어요. 몇 군데 다녀보기도 하셨는데 가는 곳마다 보람을 못 느끼시더군요. 그래서 다른 곳을 찾아보다가 아름다운가게를 알게 됐죠. 그런데 참 좋아하시는 거예요. 봉사를 나가는 날이 되면 봉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직장에 가는 사람 같으세요. 일종의 사명감이 생기신 거죠. 제가 아름다운가게 행사에 참여하게 된 건 거꾸로 어머니 부탁이었어요. 아마 행사가 있는데 진행할 사람이 마땅하지 않자 '내 딸이 아나운서다'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소박하고 예쁜 행사였어요. 마을 주민들이 오시고 봉사자들 몇 분이 준비하는 자리였는데,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지 그날 행사진행이 참 즐거웠어요. 그날을 시작으로 저 역시 아름다운가게와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진 거죠.”
 이후로 그는 아름다운가게의 크고 작은 행사를 맡

아 진행하는 재능봉사에 오래 참여했다. 행사장에 오는 길에 기증품을 양손에 들고 오는 것도 늘 잊지 않았다. 아름다운가게 홍보대사로 활동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애초에 아름다운가게의 운동 방식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평소 아나운서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기증품을 모아서 아름다운가게로 보내거나, 자원봉사에 참여하기도 한다.

“공익변호사 그룹인 '공감'에도 정기기부를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에서 목욕봉사를 나가기도 하고, 연말이면 필요한 생필품을 마련해서 복지관에 보내드리기도 해요. 가만히 보면 아나운서 중에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말하지 않아도 먼저 봉사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죠. 가끔은 봉사를 하러 갔다가 보람도 없이 형식적인 자리에만 있다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마음이 씁쓸해요. 때문에라도 앞으로는 장기간에 걸쳐 할 수 있

는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며칠 짧게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큰 보람을 느끼지는 못해요.”

아름다운가게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아름다운가게가 참 많이 성장했잖아요. 아름다운가게와 인연을 맺고 있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덩치가 커졌지만 그런 외형적인 것에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내실을 다지고 효율성을 높였으면 해요. 또 본연의 마음가짐을 돌아보는 자세도 중요한 것 같아요. 편안함에 현혹되지 않고 명성에만 연연하지 않기를 바라구요.”

그는 지금 집에서 30년 넘게 살아왔으니 새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꼭 '오픈 하우스'를 해보고 싶다고 말한다. 집안 정리를 해서 나온 물건들을 마당에 펼쳐놓고 이웃들과 수다를 떨며 사고파는 일이다. 물론, 그간 어머니와 딸이 하도 물건을 기증해서 내놓을 물건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걱정도 빠지지 않았다.

새로움으로 도전하다

지난해 여름 KBS의 새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전면적인 파업을 진행했고, 이후 60여 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를 포함해 15명의 아나운서도 명단에 올랐다. 매일 방송에 나와 시청자들을 만나는 아나운서에게 이 징계는 가법지 않은 무게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인터뷰가 무거워질까 이 이야기는 슬쩍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정세진 아나운서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꺼냈다.

“KBS 아나운서라는 안정적인 자리에서 편하게

인생을 시작한 것 같아 아쉬웠어요. 뭐든 편하게 지내온 것이 잘 한 일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당시에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죠. 격려와 위로를 해주는 분들도 있었어요. 후배들 중에는 용기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용기였는지.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살면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 내 마음이 향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냥 그런 일이에요.”

정세진 아나운서를 만나는 내내 떠올랐던 단어는 '도전'이다. 도전하는 사람은 늘 맨 앞에 서 있다. 새로운 일을 해야 하고, 그 속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이다. 정작 본인은 넘어지기 쉽고 깨지기 쉽다. 하지만 누군가 맨 앞에 서지 않으면 모두가 갈 곳이 없는 것 아닐까?

정세진이라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컨셉의 뉴스도, 1년간의 전격적인 미국 유학도, 노조에서의 활동도, 클래식에서 스포츠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방송활동, 그리고 아름다운가게를 비롯한 나눔과 봉사까지. 그의 생활은 결국 '도전'이라는 단어로 압축된다.

“내 자신이 창의력이 넘쳐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새로움을 추구하는 듯하고요. 어디서든 어떻게 새롭게 변화할 수 있을까 생각하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의 사소한 일들까지 관심이 가요. 용기 있게 나서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곳에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해요.”

참 놀라운 사장님

홍보캠페인팀



〈커피방앗간〉 이경환 사장님



〈The B〉 유정 사장님



2011년 아름다운가게는 '놀라운가게'라는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놀라운가게는 자영업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정기기부나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프로그램이다. 인터뷰에 나서기 전, 나눔활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니까 막연히 좋은 사람들일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 사장님들 참 특별하다. 뭔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넘친다. 재미있게 또 아름답게 인생을 경영하는 말 그대로 '참 놀라운 사장님들'을 만나보자.

〈인테리어백화점〉 정현목 사장님



〈하늘사진관〉 주수진 사장님



커피 방앗간

가게가 가까워질수록 커피 볶는 향기가 진동한다. 한옥의 골격을 그대로 살린 가게는 햇살이 따듯한 작은 마당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다. <커피방앗간>의 이경환 사장님은 사골 상회의 느낌으로 가게를 꾸미고 싶었다. “시골에 가면 한 쪽 구석에 방앗간이 있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상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원했어요.”

그가 처음부터 커피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은 아니다. 대학에선 경영학을 전공했고 업계 2위를 할 만큼 ‘잘 나가는’ IT회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30대에 접어들면서 그는 ‘장인(匠人)’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20~30년을 바라보고 하는 일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향아리 만드는 장인처럼, 저도 커피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 후 그는 생두 수입 회사, 콩 볶는 기계 회사 등에서 일하며 커피에 대해 배웠다. 커피의 기본을 습득한 그는 ‘나만의 것’을 만드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향아리 장인이 자신만의 향아리를 빚듯, 그는 그만의 커피를 빚어내는 커피의 장

인이다. <커피방앗간>의 아메리카노는 그가 직접 블렌딩해 만든 그만의 맛을 보여준다. “저는 커피 맛의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신 맛으로 시작해서 다크함을 지나 짭 하고 터져 나가는 맛의 흐름...”

그런 그가 요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림 그리는 일이다. 가게 이곳저곳에 놓여 있는 개성 가득한 그림들은 모두 그의 손에서 나온 작품들이다. 곁에서 커피콩이 볶아지는 마지막 소리를 들으며 그림을 그리면 스스로의 마음이 정화됨을 느낀다. 그는 이 재능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하여 소외아동의 정서치료를 후원하고 있다. 그림이라는 매개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아이들의 마음도 치료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눔에 대한 생각도 남다르다. “제가 생각하는 나눔이란,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게 부추겨주고,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에너지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요즘 젊은이들의 낙약함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앞 선 세대가 해야 할 나눔의 한 가지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그는 내년 봄 ‘날개미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 겨우내 한옥 나무 기둥 틈새에서 잠자던 날개미들이 봄이 되면 외출을 시작하는데, 손님들이 싫어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축제를 떠올렸다. “날개미는 청정지역에만 살거든요. 한옥이 그만큼 친환경적이라는 얘기인데 손님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오히려 날개미 축제를 열어서 날개미와 친해지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죠.” 생각과 발상의 전환,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이기에 가능한 기획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지금의 그를 있게 한 힘이 아닐까.





The B

“여기 오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이 있길..”

〈The B〉라는 가게 이름은 'The Blessed'(축복 받은 자들)의 약자로, 가게를 찾아주시는 분들에 대한 유정 사장님의 마음이다. 관계와 사람을 중시하는 그녀의 마음이 가게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북촌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은 가게는 오히려 갤러리에 가깝다. 흠을 만지는 작가로서의 그녀가 손님이라는 이름의 관객들을 맞이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작품의 제목이나 가격도 붙여두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관객들의 상상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도자기 작업이 처음부터 만족스러웠던 것은 아니다. “도자기는 가마 속에서 열을 견디며 처음 빛은 모습과 달라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못마땅했어요. 왜 내 상상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걸까 하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오히려 기다림 끝에 가마문을 열 때마다 설렘을 느껴요. 가마 속에서 열을 견딘 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궁금하기 때문이죠.”

도자기를 만드는 일이 기다림의 연속인 것처럼, 그녀에게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맺음 역시 시간과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일이다. 함께 마주 앉아 서로 공존하는, 그리고 서로의 움직임을 느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빠르게 지나가는 감각적인 정보에 길들여져, 그 짧은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요즘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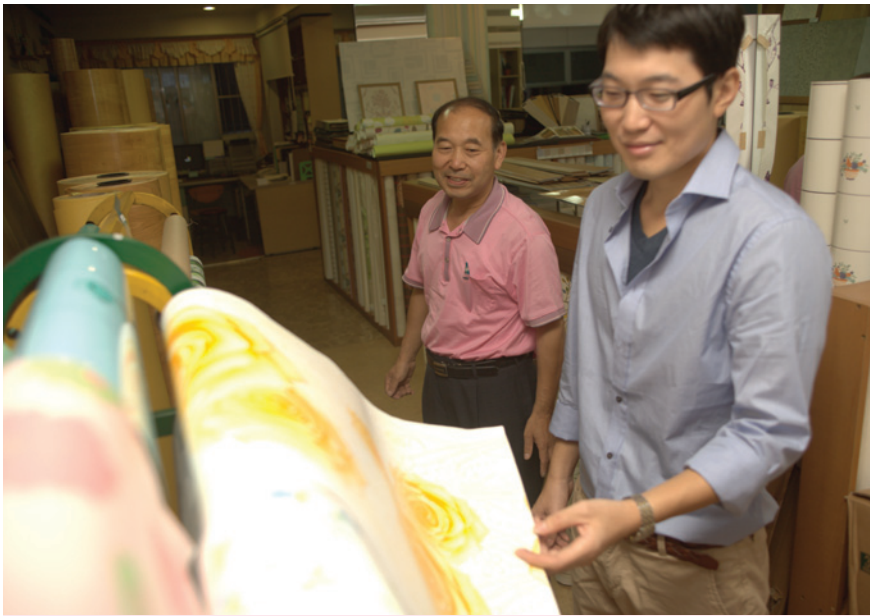
람들이 안타깝다.

그녀에게 있어 나눔 역시 관계의 연속이다. “잘 쓰지 않는 것들은 주위에 나눠줘요. 물론 잘 아는 사람에게 나눠주죠. 이 물건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고민한 뒤에 나누는 것이예요. 그 사람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오랫동안 생각하며 그 사람의 전체적인 느낌을 마음에 그려둬요. 그리고 이 느낌을 바탕으로 물건을 나누지요. 나눔이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들은 비워내고, 그것이 더 크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아름다운가게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도 이처럼 관계를 중시하는 그녀의 성격 덕분이다. “근처에 아름다운가게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이 아름다운가게에서 산 것들을 보여주시곤 하고요. 이 과정 속에서 저도 아름다운가게를 알게 됐고, 인연이 닿아 기부를 시작한 거예요. 만약 서로 관계가 전혀 없는 사이였다면 이런 아름다운 인연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가게 문을 연지 1년이 조금 넘었다는 그녀는 지금의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 한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닌, ‘나도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도 나를 아는’ 그런 인연을 그녀는 기다리고 있다.





인테리어 백화점

70일 간의 동남아시아 도보 여행은 청년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곳은 라오스의 루앙남타였다. 그곳의 소수민족인 아카족을 만나 그들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 70일 간의 전체 여행을 통틀어 가장 인상적인 경험이었다. “대개 동남아시아의 후진국이라고 하면 울고 있는 이미지가 우선 떠오르잖아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박하지만 웃고 행복해 하는 모습이 더 많았죠. 눈물과 괴로움보다는 그 외의 다양한 모습이 더 많은 곳이었어요.”

〈인테리어 백화점〉의 젊은 사장님인 정현묵 사장님은 올 봄 또 하나의 경험을 했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고 돌아온 것이다. ‘그라민 은행’은 방글라데시의 빈곤 퇴치를 위해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가 설립한 은행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영세업자들을 지원해 주는 사회적 기업이다. 깊은 인상을 받고 돌아온 그는 자신의 방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사회적 기업가’라는 단어를 적어두었다. 또 하나의 꿈을 가슴에 품은 것이다.

현재 그는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인테리어 일을 배우고 있다. 직접적으로 일을 시작한 계기는 아버지의 꿈에 대해 듣고 난 뒤이다. “사실 저는 늘 제 꿈과 제 미래에 대해서만 고민했지, 아버지도 꿈을 가지고 계실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당신의 꿈과 계획에 대해 얘기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아버지를 도와 아버지와 같은 꿈을 함께 일궈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름다운가게와의 인연도 아버지와 함께 상의하고 결정한 일이었다. “제가 직접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간접적으로라도 사회적 기업을 후원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에서 ‘놀라운가게’를 보게 된 거지요.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아버지께 말씀드렸고, 상의 끝에 후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놀라운가게’의 아저씨 캐릭터가 저희 아버지와 많이 닮았어요.”

그는 현재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베트남 소수민족 어린이들의 교육 사업에 기부하고 있다. “돈이 가장 값지게 쓰이는 곳은 교육이다.”라는 그라민 은행 총재의 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 외에도 그는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장판이나 벽지를 시공해 드리고 있다.

“놀라운가게라는 이름이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해줘요. 더 많은 가게들이 기부에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나눔을 매개로 더 많은 소규모 가게들이 서로 연대하고 함께 성장할 길 바라는 그는 기부를 당장의 손해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기부와 나눔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봐야 한다고 여긴다. 아버지와 함께 같은 꿈을 향해 걸어가듯, 다른 가게들과 함께 나눔의 꿈을 일궈나가는 모습이 기대된다.





하늘빛 사진관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에는 주인공이 운영하는 '초원 사진관'이 나온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사건들을 사진으로 남겨 주는 사진관이다. <하늘빛 사진관>의 주수진 사장님은 '초원 사진관'과 같은 동네 사진관을 꾸리고 싶었다고 말한다.

사진관의 만남은 대학 시절 사진 동아리에서 시작됐다. 고등학교 때부터 막연하게 마음에 품고 있던 사진작가의 꿈을 풀어 나가고 싶었던 것이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사진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다른 동아리는 생각도 안 했구요. 출사도 많이 다녔고, 전시회도 몇 번 했어요. 졸업 후에는 사진관에서 일하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구요. 우연한 기회에 영화 스틸사진 작업도 참여했어요. 단 한 장의 사진으로 그 상황의 감동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사진의 매력이 아닐까요."

그녀가 자신만의 첫 사진관을 꾸린 것은 몇 해 전 손재주 있는 친구들과 함께 만든 공방에서였다. '날아라 코끼리'라는 이름의 공방에서 서로 만든 소품을 판매했고, 6평 남짓한 한쪽 구석에 스튜디오도 꾸렸다. 지금과 달리 무척 좁은 공간이었지만,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녀에게 공간의 넓이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그녀의 사진이 지닌 매력은 그녀만의 특별한 사진관에서 시작된다. "보통 일반적인 사진관에 가면 일률적이고 똑같은 스튜디오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촬영을 하잖아요. 저는 그게 참

싫어요. 저는 제가 직접 만든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의 테마를 정하고, 그 테마에 맞는 촬영 배경을 직접 만드는 거죠. 한 번 만든 스튜디오에서는 소수의 사람들만 촬영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촬영 현장은 아기가지기 그지없다. 힘들지만 특별한 사진을 남겨주고 싶다는 그녀의 꿈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그녀는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지만 늘 새로움이 있는 동네 사진관을 꿈꾸고 있다. 실제로 그녀가 찍은 사진들은 전형적인 구도를 벗어난 사진들이 많다. 함께 웃고 놀면서 촬영에 임한다는 그녀의 말대로, 사진 속 주인공들의 웃음은 한없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늘 특별함과 새로움을 생각하는 그녀에게 나눴는 오히려 일상의 일일 뿐이다. 많이 갖는 것 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가지면 된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저도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예요. 하지만 제가 번 돈의 일부를 기부한다고 해서 당장의 제 삶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예요. 제가 사고 싶은 것들 중 단 한 가지만 줄여도 기부는 가능하거든요. 그저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해주고, 나쁜 일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여유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평범한 얼굴에 특별한 웃음이 피어나게 해주는 그녀 덕분에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세계의 벼룩시장

The map of the world flea market

홍보캠페인팀

세계 곳곳에 숨겨진 벼룩시장이 너무나 많다. 한번도 가보지 않아서 낯설다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
가보지 않은 곳일수록 더 크게 상상할 수 있고 혹여라도 일생 동안 한번쯤 그곳을 방문해 본다면
생각 이상의 멋진 풍경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런던, 뉴욕, 파리, 마드리드, 그리고 서울까지 알지 못했던 그래서 가지 못했던
세계의 벼룩시장으로 다 함께 떠나보자.





1, 2 영국 런던 - 포토벨로 마켓



영국 런던 - 포토벨로 마켓 (Portobello Market)

휴 그랜트와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영화 '노팅힐의 인기'에 힘입어 런던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어버린 벼룩시장. 많은 인파로 걷기조차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을 방문했다면 꼭 가봐야 하는 곳이다. 3Km 정도로 이어진 좁은 길 양쪽에 앤틱 → 과일, 야채 → 벼룩시장 → 패션제품의 순서대로 마켓이 늘어서 있다. 단연 인기가 가장 많은 곳은 앤틱 마켓. 구제 카메라, 돋보기, 고서적까지 없는 것이 없고 각종 앤틱 제품들이 새로운 주인의 손길을 기다린다. 길을 걷다 혹시라도 허기가 진다면 크라페, 해산물 튀김, 과일 등 다양한 길거리 음식에 도전해보자. 당신의 입과 눈을 즐겁게 해줄 것이다.

위치 : Notting Hill Gate 역

홈페이지 : www.portobellomarket.org



미국 뉴욕 - 헬스 키친 벼룩시장 (Hell's Kitchen flea market)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세계 TOP 10 쇼핑 거리로 뽑힌 헬스 키친 벼룩시장은 독특한 물품을 파는 상인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다. 특히 질 좋은 모피부터 시작해서 골동품, 빈티지 의류, 앤틱 가구 및 보석 등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한다. 매주 토, 일요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며 이곳에서 뉴욕의 멋쟁이들을 다 구경할 수 있다. 구색도 맞지 않고 여기저기 낡고 닳았지만, 여러분의 센스로 멋진 뉴욕 빈티지 패셔니스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위치 : West 39th Street between 9th & 10th Avenues

홈페이지 : www.hellskitchenfleamarket.com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산텔모

일요시장 (San Telmo Antique Market)

일요일 마다 열리는 가장 시골벽적인 산텔모 일요시장. 1897년에 문을 연 산텔모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어울려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그래서 이곳에는 에너지와 열정이 넘친다. 아티스트, 뮤지션, 거리 행위예술가 등 각자 자기가 가진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면 여행객들도 어느 순간 그들과 하나가 된다. 공예품들과 기념품들도 구경할 수 있고 자신의 물건을 앓은 자리에서 즉석으로 팔 수도 있다. 참, 탕고 공연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위치 : 961 Defensa or Bolivar 998, Buenos Aires

홈페이지 : www.feriadesantelmo.com



스페인 마드리드 - 라스트로 시장

(El Rastro)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의 독특한 벼룩시장. 일요일에만 문을 열기 때문에 벼룩시장이 열리는 날에는 이 일대에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들이 섞여 발 디딜 틈이 없다. 원래 라스트로는 도살장이라는 의미로 옛날 도살장이 있던 지역이 19세기부터 시장으로 변했다. 벼룩시장 보다는 큰 시장 같고 생활잡화에서부터 군용품까지 없는 것이 없다. 일반 숭에서는 구할 수 없는 독특한 물건들이 많고 여기저기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흥정소리가 들린다. 마드리드 시민들 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모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위치 : Between Plaza Mayor, La Latina and Puerta de Toledo

홈페이지 : www.elrastros.org



프랑스 파리 - 생뚜앙 벼룩시장

(Les Puces de Saint-Ouen)

파리 북쪽에 위치해 있는 파리 3대 벼룩시장 중 하나다. 1920년대에 형성되어 지금까지 열리고 있고 '꼴리낭꾸르 시장'으로도 불린다. 특이하게 이곳은 구역별로 각기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데 비롱 구역, 도핀느 구역, 말라시 구역, 베르네종 구역 등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종고 책, 앤틱 가구, 액세서리 등을 팔고 있다. 3,000여 개 이상의 매장과 기업형 대형 전문 매장 등이 있어 다른 벼룩시장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받을 것이다. 벼룩시장의 원조가 궁금하다면 바로 생뚜앙 벼룩시장을 꼭 방문해보자.

위치 : 140 rue des Rosiers 93400 SAINT-OUEN

홈페이지 : www.parispuces.com



일본 도쿄

- 요요기공원 벼룩시장

가까운 나라 일본의 벼룩시장을 빼놓을 수 없다. 1981년에 '자유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요요기공원 벼룩시장에서는 아마 도쿄에 사는 젊은이들을 모두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주로 캐주얼 의류, 운동화, 가방 같은 패션 빈티지 아이템 등이 판매되는데, 아마도 매와 같은 눈으로 잘 찾아 보면 쓸만한 옷가지와 소품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벼룩시장 한 켠에서는 아마추어 음악가들의 연주소리도 들린다. 도쿄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을 만나고 싶다면 요요기 벼룩시장을 추천한다.

위치 : 2 Jinnan Yoyogi-Kamizonochō

Shibuya-ku Tokyo

홈페이지 : www.kensetsu.metro.tokyo.jp/kouen/kouenannai/park/yoyogi.html





미국 뉴욕
헬스 키친 벼룩시장
(Hel's Kitchen flea market)

영국 런던
포트벨로 마켓
(Portobello Market)

프랑스 파리
생뚜앙 벼룩시장
(Les Puces de Saint-Ouen)

대한민국 서울
독섬 나눔장터

일본 도쿄
요요기공원 벼룩시장

스페인 마드리드
라스트로 시장
(El Rastro)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텔모 일요시장
(San Telmo Antique Market)



1 라스트로 시장 거리
2, 3, 4 독섬 나눔장터



대한민국 서울 - 독섬 아름다운 나눔장터

독섬 아름다운 나눔장터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대표 벼룩시장이다. 3월부터 10월까지 독섬에서 매주 열리는 벼룩시장에는 어린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각기 본인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 판매한다. 판매수익금의 일부는 아름다운가게에 기부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 시민들의 건전한 주말 놀이문화의 장(場)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고 재사용, 재활용의 의미도 배울 수 있는 1석 3조의 벼룩시장이다.

위치 : 7호선 독섬 유원지역 2,3번 출구

홈페이지 : www.flea1004.com







아름다운가게 이야기

아름다운가게에서 만나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

아름다운가게의

행복한 추억을 전합니다.

아름다운가게의 참 아름다운 감사장

홍보캠페인팀

바나나상자를 재활용한 감사장

창립 초기부터 꾸준히 사용해 온 감사장이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바나나는 보통 튼튼한 종이상자에 담겨 있다. 이 상자를 재활용해 벽에 걸거나 책상 위에 세워놓을 수 있는 액자 형태의 감사장을 만든다. 만드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 DIY 형식의 재활용 상품으로도 개발됐다. 이 바나나상자 액자는 아름다운가게가 시민공모를 통해 채택한 것이다. 쉽게 버려지는 바나나박스를 다시 되살려 쓴다는 의미로 박스에 붙은 스티커나 인쇄내용도 그대로 살린 것이 특징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마운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편지, 따뜻한 악수,
소박하더라도 정성이 담긴 선물은 어떨까?
아름다운가게는 거의 매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고마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살짝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런 고민을 덜게 해 주는 것이 아름다운가게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감사장'이다.
아름다운가게 초창기부터 최근까지 사용되고 있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참 아름다운 감사장'을 만나보자.



아름다운가게 앞치마 감사장

아름다운가게의 자원봉사자들이 입는 연초록색의 앞치마는 어느덧 아름다운가게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 앞치마를 작은 크기로 제작하고, 액자에 담아 감사장을 제작했다. 아름다운가게의 느낌을 잘 전달하면서 동시에 특별한 기념품 역할을 한다.

정기기부자들을 위한 특별한 감사 편지

아름다운가게로 정기기부를 해주시는 기부자님께 감사의 마음과 그간의 도움으로 생긴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편지다. 아름다운가게 공정무역 커피 티백이 예쁜 천사모형에 달려있어 따뜻한 커피의 여유도 함께 선물하는 것이 특징. 아름다운가게 해외지원 프로젝트인 '나마스페 갠지즈'를 통해 네팔과 방글라데시에 지원되는 오리를 모티프로 삼았다. 특히 디자인은 재능기부로 이루어져 더욱 뜻 깊다.





팝업북 감사장

펼치면 입체 그림이 올라오는 예쁜 동화책을 연상시키는 이 감사장은, 기부금을 통해 진행된 소외계층 지원에 대한 설명과 그 효과를 재미있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쉽고 즐겁게 아름다운가게의 활동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와인병 재활용 감사장

다 사용한 와인병을 고열에서 압축해 만드는데, 병 자체의 빛깔은 그대로 살리면서 자연스러운 곡선이 드러나도록 했다. 아름다운가게 특유의 되살림 정신과 우아한 느낌이 한껏 어우러져 받는 분들에게 모두 반해버린 베스트셀러 감사장이다.

양장 도서 재활용 감사장

무겁고 두꺼워서 이제는 서점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양장본 문학전집의 경우에도 훌륭한 감사장이 된다. 문학전집은 책 자체를 그대로 살리면서, 겉면에 감사장 제목을 인쇄하고 속지는 단단하게 고정시킨 후 아름다운가게 로고를 파내서 만든다. 완고하지만 단정한 문학전집의 느낌을 고스란히 살리면서도, 받는 사람이 책의 결장을 넘기는 순간 신선한 느낌을 받게 된다.



헌옷을 재활용한 선물 포장

선물을 할 때에도 특별함을 강조한다. 보통 선물을 포장지에 그냥 담아 드리기보다는 아름다운가게로 기증된 의류 중 판매가 불가능한 것을 골라 해체한 후 리본을 달아 천포장지로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이다. 작은 선물도 더없이 특별해진다.

레코드판 재활용 감사장

아름다운가게로 기증되었지만 상태가 나빠 판매할 수 없는 레코드판을 재활용한 감사장이 널리 쓰이고 있다. 아름다운가게의 재활용디자인 브랜드인 예코 파티메아리에서 직접 디자인한 이 감사장은, 은은한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잘 살려 받는 이로 하여금 잔잔한 감동을 느끼게 한다.



골판지와 헌옷 재활용 감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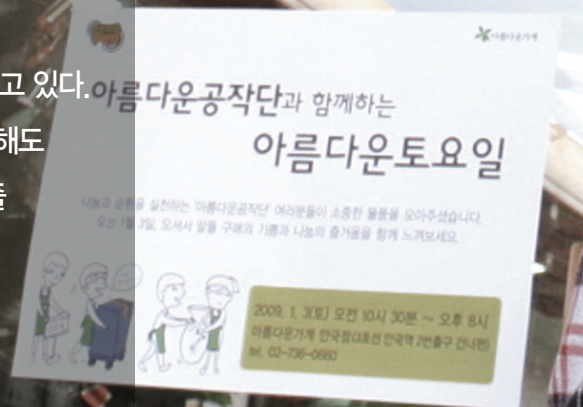
주위에 흔한 골판지를 재활용해 틀을 만들고, 아름다운가게의 로고를 형상화한 부분에는 기증되었지만 판매할 수 없었던 헌옷으로 채웠다. 옷의 무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화사하고 깔끔한 느낌이 잘 표현되어 아름다운가게 이미지를 잘 나타낸다.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사회

송기호

아름다운가게 사회적기업센터

사회적기업이 세간의 이슈다. 구글에서 검색해보니 검색 결과가 7천 건에 육박한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 알거나 관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국내에서 2011년 3월 현재 530여개의 사회적기업을 인증했다고 한다. 정부는 특히 2011년 한해 동안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고, '소셜벤처경연대회' 같은 행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붐업시키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사회적기업이 세상을 구원해 줄 만능 솔루션인줄 알았더니 그들이 오히려 도움을 받을 처지더라.'는 실망이 늘어나고 있고,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사회적기업이라는 편향된 인식도 있다.



문여는 시간 10:30
문닫는 시간 20:00
일·공휴일은 쉽니다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가게 지원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

벤처에 투자할 때는 어떤 사람이 기업을 이끌고 있는지가 결정적인 평가 요소다.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도 사람을 보고 평가하게 된다. 얼마 전 큰 성공을 거둔 벤처 창업자를 만났다. 최근 3년간은 소셜벤처를 찾아 투자하는 일도 진행해오고 있는데, 지원하고 싶은 사회적기업가가 부족하다고 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역량과 열정을 두루 갖춘 예비사회적기업가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열정과 사명감이 있다고 해도 비즈니스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에 비한다면 무척 의아한 결과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와 지자체들의 노력이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확충해 보겠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이 반영되면서, 그간 너무 숫자 늘리기에만 급

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열정과 역량을 갖춘 사회적기업가가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이제 정부나 민간 영역에서나 사회적기업의 씨앗을 찾아 키우는 일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된다.

아름다운가게는 최근 '뷰티풀 펠로우'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사회적기업가를 찾아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 그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기업가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다'며 응원해주고 있어 힘이 난다.

2011년 상반기에 진행한 1차 지원대상자 모집에 예상보다 많은 예비사회적기업가들이 지원했다. 그 중 4명이 최종 선발되어 뷰티풀 펠로우로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불평등 문제, 농촌의 문제를 기업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제안, 대도시에서의 지역공동체 운영 등 새롭고 의미 있는 시도다.

올해 말에는 2차 모집이 시작되는데 많은 참여가 이어져 아름다운가게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함께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사회적기업, 기다림의 미학

시작은 늘 어렵다.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제법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름다운가게 역시 10명 남짓한 직원들의 월급도 버거울 때가 있었고, 턱없이 부족한 사회인식 때문에 힘들게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때도 있었다. 요즘 사회적기업을 시작하는 젊은 도전자들도 열정과 패기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실은 언제나 예상과 다르기 마련이다.

최근 아름다운가게로 ‘경영 컨설팅을 해달라’는 요청이 종종 들어온다. 이제 막 시작한 사회적기업가들이다. 물론 아름다운가게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공유할 수 있지만, 모든 문제에 적합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지는 못하는 형편이다. 사업 경영에 왕도가 있다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아름다운가게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기업들이 실패와 도전을 반복하며 성장해 왔다는 사실이다. 기업이 잘 되는지를 알아보면 일 년 동안 실패한 프로젝트가 몇 개인지 보면 알 수 있다는 말도 있다. 그만큼 도전하는 기업 문화가 성공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즉, 사회적기업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건강한 사회적기업이 많아질 수 있다.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학습효과가 자산이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를 ‘인내 자본’이라고 하는 이유다.

이제 제대로 된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해서 자립할 때까지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름다운가게는 ‘사업은 실패해도 사람은 얻는다’는 생각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사업의 원칙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 그물코 경제

사회적기업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사회 환경이 호독하다. 양육강식의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도 어려운데, 소셜미션까지 감당하겠다고 나섰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적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 초기에 문제점을 잡아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아름다운가게는 그것을 ‘그물코

경제’라고 표현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그물코 경제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자연이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목표로 하는 사회경제적 구조이다. 아름다운가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매장의 단골손님, 기증이 습관이 된 사람들, 정기기부자, 소리 없이 자리를 지키는 자원봉사자와 같은 이들의 참여와 협력 덕분이다.

사회적기업은 ‘협동 경제’, ‘협력 소비’, ‘사회적 경제’를 통해 그물코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유럽의 협동조합기업을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 유로존에서 일어나고 있는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견실하게 살아남는 유럽의 협동조합기업을 보면서 협력과 신뢰의 사회적 경제기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국내에서도 원주를 시작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 경제모델이 하나 둘 실험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아름다운가게도 전국 각지의 아름다운가게 매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잉태될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고자 한다.

‘문제를 보느냐’에서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려는 곳은 많은데 사회적기업가는 적고, 그나마 사회적기업을 하려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제 문제를 알았으니 절반은 해결된 셈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름다운가게도 함께 뛰겠으며, 정부와 기업은 물론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을 때이다.

아름다운가게 이야기

COLOR OF THE BEAUTIFULSTORE'S VINTAGE

홍보캠페인팀



2003년 9월 국립 국어원에서 발간된 신어 자료집에 보면 '빈티지하다'라는 말이 실려있습니다. '빈티지하다'가 의미하는 것은 '옛 것으로 품위를 살린 데가 있다'를 의미합니다. 말이 좋아 빈티지인 것이지 우리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헌 옷' 인 것이죠.

헌 옷이 패션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 하지만 그 헌 옷이 패션이 되었고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헌 옷이 빈티지일 수는 없습니다. 빈티지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디자인, 생산 년도, 퀄리티와 보존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다면 바로 빈티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빈티지 매니아들은 옷에 붙은 태그 보고도 언제 제작된 어느 정도의 가치의 옷인지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아름다운가게 기증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옷입니다. 대략 50%를 차지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 헌 옷 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모두 다 같은 헌 옷이 아닙니다. 매와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름다운가게 매장을 방문해 보았다면 가끔 보물 같은 녀석들을 발견하며 속으로 환한 웃음을 짓고 계셨을 겁니다. '아니 이 보물이 이곳에 숨어 있다니!'하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빈티지 아이템들입니다. 한때를 풍미했던 명품들의 옛날 디자인에서부터 일본, 프랑스 등에서 제작된 의류 및 아이템 등, 이런 녀석(?)들은 다른 아이템들과 차별화된 가격으로 책정하여 판매합니다. 아름다운가게에서도 빈티지 패션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름다운가게의 빈티지 의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가게 빈티지도 물론 기존의 빈티지 패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기증자의 마음과 기증품에 담겨있는 사연입니다.** 단순히 빈티지 의류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기증자들의 사연이 담겨 있는 물건을 만날 때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가게에서 옷의 가치는 가격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님의 유물을 기증하기도 하고, 아끼고 아끼던 옷을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기증하기도 합니다. 절대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지요. 이 가운데 빈티지패션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선별하고 재판매를 합니다.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요.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순환과 나눔의 연속이 됩니다.** 이는 '빈티지'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대로 '옛 것으로 품위를 살리'는 진짜 아름다운가게만의 빈티지가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가게 빈티지 의류는 다른 빈티지 의류처럼 매우 디자인이 뛰어나거나, 고급스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가게 빈티지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아름다운가게 매장을 찾았을 때 그 속에서 발견하는 보물처럼, 모두에게 일상에서 만나는 놀라운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빈티지 특화 매장은 없지만 언젠가는 아름다운가게만의 특별한 빈티지 매장을 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날을 손꼽아 기다려주세요. 참! 여러분들을 위해 아름다운가게만의 특별한 빈티지 화보를 준비했어요. 이 화보를 통해 다양한 재미를 느껴보세요.



#1. 가을이 오면

스커트 주황꽃무늬 오일릴리(Oilily) 단추스커트

구두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갈색구두



#2. 노란 CEO

자켓 주식회사 루루도(株式會社 ルルド)의
옐로우자켓

바지 기본 정장바지

핸드백 롯데 미미핸드백

구두 Saks fifth avenue fenton last의
앞코 골드 검정구두



#3. 숨은 초록매력찾기

원피스 Plidou Tokyo style의 일본 빈티지
주름 원피스

핸드백 수술 달린 블랙가죽 핸드백 (Made in Italy)

슈즈 Evan-Picone 샌들 (Made in Italy)

#4. 홍콩 스파이

원피스 GENNY 차이나풍 실크원피스
(Made in Italy)

슈즈 녹색플랫슈즈





#5. 내가 로렌

원피스 랄프로렌 (RALPH LAUREN)

벨트 빨강 리본 에나멜 벨트

슈즈 XAVIERDANAUD
(영국디자이너 제품으로 추정)



#6. 할머니 죄송해요

카디건 Eagle, 가오리형의 독특한 디자인과 쓰리버튼

치마 하얀주름치마, 제조 데드 93년 제작제품

팔찌 흰색 뱀글



#7. 써니야 놀자

상의 하얀 민소매 (새제품)

자켓 유니클로 (UNICLO) 화이트 진자켓

스커트 스테파넬 (STEFANEL)



#8. 청치마의 반란

블라우스 앤테일러 (ANNTAYLOR,
Made in Korea)

치마 벨트 청치마 (수출용으로 제작)

슈즈 뱀피느낌의 합성피혁 슈즈

귀걸이&목걸이 여러 의상에 코디 가능 아이템

선글라스 파코라반 파리 (Paco rabanne paris)



#9. 크루즈여행

블라우스 차이나풍 빗살무늬 브라우스

스커트 MONDI 제품 (Made in Germany)

슈즈 가죽과 스웨이드가 섞인
Bally of Switzerland



#10. 망고 스무디

남방 체크무늬 실크 남방

바지 ANNE KLEINE, 100% 실크

슈즈 GENNY

벨트 패브릭 / 합성피혁



오 마이 갓! 빈티지 의류를 입고 싶다는 기획을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하지만 아름다운가게 안에는 정말 숨은 인재들이 많았습니다. 함께 해준 간사들과 활동천사님 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번 촬영은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전체적인 빈티지 의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모든 의류부터 소품, 모델들의 메이크업과 헤어 까지 꼼꼼히 챙겨준 시동 (되살림팀 간사), 전체적인 현장 분위기 및 촬영 방향과 촬영을 이끌어 준 방실장 (순환지원팀 간사), 뷰티풀마켓 판매를 도와줄 착하영 (공익상품팀 간사), 그리고 바쁜 일정 가운데도 흔쾌히 모델로 활동해준 정근양, 백장미, 한결 천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무척이나 더운 날이었는데 모두들 즐겁게, 신나게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빈티지 2탄 때에도 함께해주실 거죠?



우리는 즐거운 축제, 지구는 아픈 축제

김홍구

아름다운가게 움직이는가게팀

축제. 인류 역사상 가장 흥분되고 즐거운 이벤트.

걱정과 근심을 잠시 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비타민 같은 존재.

그렇다. 축제는 삶의 활력소이고 충전소이다.

움직이는가게팀에서 근무하는 필자도 축제를 매우 사랑하고,

아름다운가게의 행사도 축제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소음이고 오염에 지나지 않는 것이

바로 축제이다.

얼마 전부터인가 국내 여러 축제에서 친환경 체험 부스들이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유행처럼 환경이벤트가 번져나갔다. 아름다운가게도 축제에 초청되는 단골 파트너로 '나눔'과 '환경'아이콘을 가지고 참여하곤 한다. 그렇다면 과연 거대한 축제 한쪽에 마련된 친환경 부스 하나로 진짜 친환경 축제가 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어떤 축제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

2007년 미국 'Live Earth'는 엘고어와 파트너를 맺고 세계 주요도시에서 대형 환경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대형 음악공연이었지만 야간을 피해 대낮에 행해졌다. 조명은 엄청난 양의 전기를 쓰기 때문이다. 이 행사에는 'Green Event Guideline'이 있었고 이 가이드라인은 에너지, 물, 쓰레기, 교통, 커뮤니케이션, 구매 등 총 6가지 기준에서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인 행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The Sustainable Living Foundation'에서 만들어낸 'sustainable event planner guideline'을 통해 축제 현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양식과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이 같은 해외사례 등을 참조하여 환경부에서 '저탄소 녹색행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중에는 '행사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기'라는 엑셀시트가 있어 조사 수치를 대입하면 행사에서 발생한 탄소량을 산출할 수 있다.

이런 연구 때문에 요새는 심심치 않게 진정한 친환경적 노력을 기울이는 행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에너지와 쓰레기, 교통 부분만 들여다보자.



- 1 2 에너지 플레이 그라운드 시소 놀이를 통해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 3 축제현장에 배치된 태양광 발전기. 3kw가량의 전기를 공급하는데 이는 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다.
- 4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에서 활동중인 '그린폴리스'. 이들에게는 축제에 참여할 때 최대한 평기하고 요란한 복장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다.
- 5 하와이 코쿠아페스티벌에 마련된 자전거 주차장.
- 6 주요 무대에 메인 협찬사를 뒤로하고 전면에 부착된 옥스포드와 그린피스 로고.
- 7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만든 공기와 조형물과 홍대인근 길거리에 버려진 플라스틱컵을 모아 전시한 조형물.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자원의 재사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서울프린지페스티벌2011'에 참여한 아지매연구소의 활동중 하나.

에너지

축제에서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쉬운 부분은 에너지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거나 대체에너지를 공급하는 식으로 시행되는데 대체에너지 공급의 대표적인 곳이 'Global Inheritance'이다. 이곳에서는 '에너지 플레이 그라운드'를 만들어 축제에 공급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양광발전과 자전거 발전기는 물론 시소, 그네 등 놀이기구와 'Human Hamster Wheels' 발전기를 이용한 DJ공연도 진행한다. 특히 태양광 발전기는 여러 업체에서 이동식으로 제작해 곳곳에 렌탈하는 사업이 성행하고 있을 정도이다.

쓰레기

축제현장에서 심각한 환경 파괴 요인으로 지목 받는 것은 쓰레기다. 우리나라는 분리수거가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는 편이지만 주요 대형축제에 가면 심각할 정도로 많은 쓰레기양이 문제가 되고 있다. 후원사에서 배포하는 기념품과 음료수병, 일회용 도시락 용기, 홍보용 전단 등이 마구 버려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이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아 일반 매립쓰레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유명 축제인 '글래스톤베리 축제'(<http://www.glastonburyfestivals.co.uk>)에서는 '그린폴리스'라는 봉사 조직 'Save the World'(<http://savetheworldclub.org>)의 도움으로 운영하였다. 이들은 노상방뇨 금지와 화장실 사용 권장, 쓰레기 분리수거, 그리고 담배꽂초 무단 투기 금지 등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는데 좀 의외로 생각되는 내용도 있지만 광활한 페스티벌 현



장을 보면 이 같은 캠페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눈에 띄고 예쁘게 제작하여 관람객이 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교통

축제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의 50%가 관람객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그래서 친환경 축제에서는 대중교통이나 셔틀버스 등의 이용을 권장한다. 하와이의 유명한 '코쿠아 페스티벌'(www.kokuafestival.com 주최자 가수 잭 존슨)에서는 교통 이용에 대한 캠페인을 통해 실제 공연장에 자전거 330명, 전차 900명, 셔틀버스 17명, 자가용 카풀 이용객 340명 등 대중교통 활성화에 있어 좋은 결과를 내기도 했다.

지금까지 해외의 사례들만 열거했다. 국내 사례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11'이 개최되었다. 이곳에는 아름다운가게에서 운영한 '아.지.매 연구소'(아름다운 지구를 위해 매일 연구하는 사람들의 자원봉사 활동)가 투입되었다. 10명의 단원이 2개월간 프린지페스티벌의 친환경적 변화를 위해 활동하였는데 한국에서는 최초로 축제에서 발생한 탄소량 측정 및 거리 캠페인을 목표로 하였다. 8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총 16만여 명의 관람객과 아티스트, 스태프가 모여 발생시킨 탄소는 총 20,486,005kgCO₂였고, 이중 교통에서 무려 20,477,442kgCO₂가 발생되었다(566명 표본조사). 하지만 이 교통량에서도 88.2%가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방문했기 때문에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 공연과 사무실 운영 등에 사용된 총 에너지에서는 7,009kgCO₂, 전단이나 포스터 등 인쇄물과 쓰레기 부분에서는 1,553kgCO₂가 발생하였다.

해외 사례 중 덴마크의 로스킬데 음악 페스티벌의 에너지 부분 탄소발생량의

예를 들어보겠다. 이 축제는 4일간 약 11만명의 관객이 참여한 큰 축제이며, 전기 사용량은 4만kw였다. 프린지가 17일동안 1만6천여kw를 사용한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양이다. 로스킬데 음악 페스티벌은 전력에서만 145,600kgCO₂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이 축제는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운영되었던 축제로 알려져 있다. 모든 항목에서 정확한 비교가 어려운 이유는 탄소 발생량을 정확히 산출한 축제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기념품과 전시물, 소모품 등을 탄소발생량으로 환산한다는 것도 지금의 수준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각 부분의 전년도 탄소 발생량을 기록해 두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하는데 기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도 잡을 수 없다. 친환경적으로 진행했다고 자부하는 서울프린지페스티벌도 발생시킨 탄소를 상쇄시키기 위해 10억여원을 투자하여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CO₂ 1톤당 50,000원 계산_환경부 발표 기준).

그저 웃고 즐기기만 했던 축제가 지구를 이렇게 병들게 하는 요소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기분 이 썩 좋지않다. 하지만 축제는 인류 문화에 순기능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축제를 그만 두어야 하는 것이 대안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는 친환경의 길. 어떻게 노력해야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우선 아름다운가게에서의 활동만이라도 더 친환경적으로 바뀌 나가야하지 않을까? 우리가 순환하는 자원과 사용하는 에너지 사이의 탄소 발생, 상쇄량 상관관계를 좀 더 깊이 들여다 보아야하는 시점이 된 듯하다.

개봉점과 청소년쉼터 이야기

이금숙

아름다운 구로청소년센터 시설장

아름다운가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구로동의 '아름다운 구로청소년센터'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아름다운가게 개봉점에서 여러분들이 3년간 애쓰신 노고로 만들어진 청소년센터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의 땀방울이 맺은 결실입니다.

센터 주변에는 구로중학교, 영서중학교, 영림중학교, 구로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안전하고 활기찬 공간이 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절실하였지만, 그간 제대로 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지 못해 많이 아쉬웠습니다.

우리 센터는 아직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을 잘 키우는데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여러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또 서로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도 합니다. 한 예로 성공회대학교에서는 멘토링사업을 진행하고 있

어 아이들이 재미있는 악기인 '우쿨렐레'를 배우고 있습니다. 또 KT&G 복지재단에서는 기초영어를 지원해 주고 계시고, 수유너머에서는 인문학과 연극을, EM교육개발원에서는 미술수업을 진행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구로여성회에서는 난타수업을 진행해주고 계셔서 우리 센터는 지역 내에서도 풍성하고 신나는 청소년들의 공간으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요즘 센터에는 신기하고 의미 있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큐멘터리 촬영입니다. 다큐멘터리를 찍는 작가 한 분이 오셔서 우리 센터에서 활동하는 한 아이의 삶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데 넉넉하지도 편안하지도 않은 환경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카메라 앵글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삶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삶에 대해 이해하고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구로청소년센터 청소년들이 하이서울페스티벌 공연에 참가하여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촬영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삶 속에서 나만의 희망의 길을 만들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이를 바라보며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린 중학생들은 아직은 마냥 철없는 아이들로만 귀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치기 어린 짓에 어이가 없기도 하고, 흡연 문제 등으로 속상할 때도 있지만, 이 어려운 순간을 잘 넘기고 나면 분명히 자기 갈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함께 행복을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무엇보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아가 자기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을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겠지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주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원하는 것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손 잡아주고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있고 없음이, 그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게 되는지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가게 개봉점과 함께 이런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배우고 놀 수 있는 곳이 생겼고, 이로 인해 참 많은 변화와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이룬 일들입니다.

이런 행복과 추억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이 자리의 의미를 잘 생각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가게와의 만남

김문환

아름다운가게 전 이사장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가게 안국점
자원봉사자 모집

아름다운가게는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는
나눔과 순환의 사랑방입니다.
일주일에 4시간,
안국점의 활동원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자원봉사 문의/신청
736-0660



宋나라의 유학자 주돈이는 애연설(愛蓮說)에서 국화는 은둔의 꽃이고 모란은 부귀의 꽃이며 연꽃은 군자의 꽃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진창에서 자라지만 오염되지 않고, 향기는 멀수록 더욱 맑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¹

연은 더러운 진흙 바닥의 물과 흙을 자양분으로 하여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우리 아름다운가게는 연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이미 사용하던 물건을 모아 새로운 마음으로 사고파는 장소입니다. 현 물건 속에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땀과 애환에 추가하여, 그 물건을 사용하던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환희와 고통, 황홀함과 역경 등등이 녹아서 그 속에 아름답게 베어 있습니다. 그토록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물건의 재활용을 통하여 우리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동시에 근검절약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환경보호는 그에 따른 커다란 부산물이지요.

제가 아름다운가게의 이사장직을 3년 반이나 하게 된 것은 크나큰 보람입니다. 2008년 3월 제가 봉직하던 국민대학교의 총장직을 종료한 직후부

터 지난 8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 저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 사이에 가게의 점포 숫자가 100을 넘었고 연간 매출액도 250억에 이르게 되었으며, 옷가지와 책을 취급하던 업무의 영역도 아름다운커피에까지 확장되어 네팔과 페루, 우간다 등지의 커피 농원이 그 값을 올려 받는 소위 공정무역(fair trade)에까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연간 50억 가까운 자금을 우리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업적은 250여명의 활동가와 5천분의 자원봉사자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믿습니다.

내년 봄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가게의 10주년 기념 행사를 뒤로하고 제가 이사장직을 그만 두게 된 점은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제 자신이 대학에서 정년을 하게 되어 많은 것을 정리하게 된 위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그만 두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보다 훨씬 유능한 분이 새로운 각오로 활동할 수 있어야 그 수익을 또한 아름답게 사용하는 아름다운가게가 앞으로 더욱 번창하는 성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힘난하고 힘이 겨운 환경에서 자라나 생활하면서도 세속의 때가 묻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 군자의 덕목을 갖춘 연꽃 같은 사람일 것처럼, 아름다운가게가 더욱 많은 아름다운 향기를 낼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각주] 오수형, [한자 이야기](422) 出淤泥而不染, 濯清漣而不天, 동아일보 2008년 05월 20일.



아름다운가게 활동천사들과 거리 기증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아름다운가게에서 만난 삶의 의미

김대철

활동천사, 아름다운가게 이사



아침부터 마음이 바쁘다.

팀장 회의를 마치자마자 자금 결재와 간단한 업무 협의를 하고 서둘러 차의 시동을 걸었다. 오늘은 자원봉사로 아름다운가게에 대한 강의가 있는 날이다. 비슷한 주제로 몇 년째 하고 있는 일이지만 늘 긴장이 된다. 주어진 시간 안에 봉사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여름 유독 많이 내린 비와 더위에도 휴가도 반납한 채 자원활동과 강의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자원봉사가 나의 일상이 된 것이 사실이다. 며칠 전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써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선뜻 그러하겠노라 약속하진 못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과 인연이 되어 봉사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행복과 보람을 찾으며 삶의 원동력이 된 모든 일들이 그렇게 거창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십여 년 전 나의 삶에 참 힘든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해결하고 다시 재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던 때, 나로 인해 힘들었던 가족과 주위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분들을 생각하며 '그래 무언가 시작해 보자'는 생각으로 아름다운가게를 찾게

되었고, 매주 토요일 아름다운가게 양재점에서 4시간씩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단순히 누구에게든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었지만 그 일이 내 인생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줄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봉사 시작 첫해인 2005년, 나눔 보따리 행사에 처음 참여하였고 그 이후 봄가을에 진행되는 수익나눔 활동에서는 수혜자 가정을 방문하여 내가 살아온 삶과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힘들게 사는 가족들을 직접 만났던 경험이 단순 봉사자를 적극적인 자원 활동가로 변모시킨 계기가 되었다.

기억에 남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자 한다. 3년 전에 200만원 긴급 지원을 요청한 내용을 확인코자 방문한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중학교 3학년

A양과 뇌졸중으로 왼팔과 다리가 불편한 A양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다. 정부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모녀에게 4년 전 암 투병 중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보증 때문에 임대아파트 보증금 200만원을 내 놓으라는 소송이 들어온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그대로 실사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수익나눔 위원회에서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법원 최종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일정 기간 생활비도 지원해 주었다.

모녀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작은 힘도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에 만난 A양은 지금은 고3이 되었고 자주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면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이면 아름다운가게 양재점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활동을 하면서 몸은 조금 고되지만 마음은 늘 풍요로웠다. 가끔 "사장님은 본업이 뭐예요?"하고 묻는 이가 주위에 있는 것을 보면 분명 봉사활동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난 속으로 '봉사가 주업이고 회사 일은 알바입니다!'라고 말한다. 행복하다! 이 일을 선택한 것에 감사하고 보람을 느낀다.

나의 작은 힘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일인지 새삼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힘이 닿는 한 이 일을 계속 할 생각이다.

어느새 강의 시간이 되었다. 오늘도 나의 열정과 행복의 기운이 강의장을 찾은 모든 봉사자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며 강의실로 들어선다.

그림
뉴나나
글
홍보캠페인팀

고맙습니다. 아직도 기억해주셔서

잊혀질 뻔한, 잊혀졌던 물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가게에 도착했습니다.

누구에게는 기쁨, 행복, 사랑, 혹은 슬픔과 애잔함이었을
추억과 기억이 담겨 있는 소중한 물건들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이 있는 물건을 볼 때마다 때론 웃음이, 눈물이 납니다.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마음들이 자꾸 쌓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나눔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희망과 기쁨이 조금 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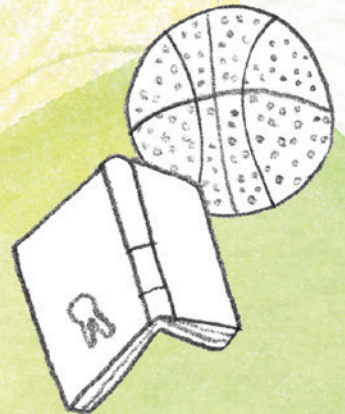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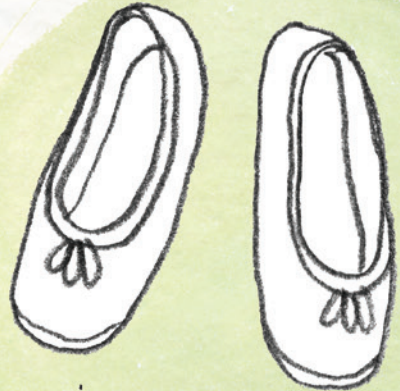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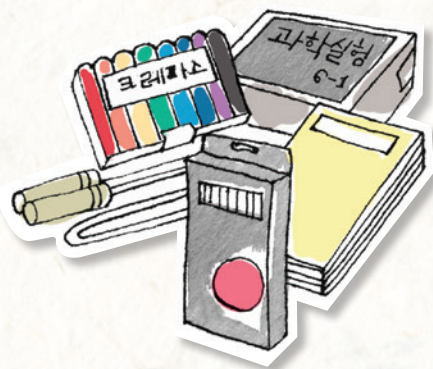


그 마음입니다

아직도

기억해 주셔서





부모님의 문구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고 계세요. 20년이 넘도록 운영 해 오고 계신데 이번에 부모님께서 대대적으로 물품을 정리하셔서 잘 팔리지 않는 물건이나 새 것이지만 오래된 물건 등을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하기로 했어요. 부모님께서도 매우 좋아하세요. 오래되거나 먼지 쌓인 물품이지만 포장지를 벗기면 새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팔려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부복을 나눠 입어요

둘째를 임신했을 때 올케에게 물려 입은 임부복들입니다. 사실 임부복은 정말 짧게 입기 때문에 사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모두들 함께 절약하며 입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증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즐거운 일에 아름다운가게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중학생이 되어 읽지 않는 위인전이에요

저는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어린이 위인전을 읽지 않습니다. 사촌동생들도 거의 제 또래여서 줄 수도 없게 되어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아름다운가게라는 곳에서 책 기증을 받는다고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름휴가기간에 옷장 정리했어요

여름휴가를 받아서,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고민하다가 옷장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몇년동안 한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많아, 올해엔 꼭 필요하신 분이 입으면 좋겠다 싶어서 별 것 없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꼭 필요하신 분이 가지고 가셨으면 하네요. 감사합니다.

아빠의 유품입니다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평소 마음이 따뜻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좋아하셨던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아빠의 장기를 기증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빠의 유품들을 정리하며, 아버지께서 입으시던 깨끗한 옷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인다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으로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옷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서토론회의 책을 기증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자기개발서를 읽고 독서토론회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책들을 읽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증합니다. 필요한 분들이 마음에 드는 자기개발서를 가졌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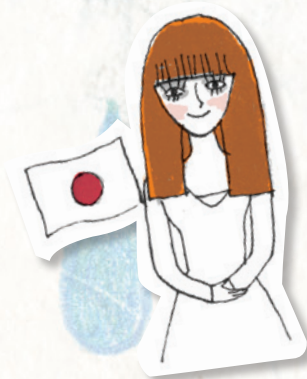


예비 신혼 부부예요

예비 신혼부부 기증에 대한 메일을 받고, 조금의 틈도 없이 기증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몇 번째 아름다운가게를 통해서 기증하고 있는데 매번 말씀 드리지만, 이렇게라도 사회에 사랑을 전할 수 있어 기쁩니다. 부족한 물건들이지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사용할 수 있는 유모차입니다

며칠 전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중 경비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유모차 안 필요하세요?" 하고 물으시기에 "집에 있는데요." 했더니 누가 재활용 분리수거 창고에 아주 새것 같은 유모차를 놓고 갔다면서 필요하면 가져다 쓰라는 거였어요. 혹시 몰라 상태가 어떤가 하고 보러 갔는데 이걸 정말 몇 년 쓰지 않은, 버리기엔 너무나 아까운 유모차였어요. 게다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브랜드의 유모차였지요. 너무 아깝기도 하고 누가 쓰더라도 정말 잘 쓸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에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하고 싶어요.



일본에서 온 치에꼬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치에꼬 라고 합니다. 이사해서 아꼈던 보물들 필요한 사람에게 드리고 싶어요. 소중히 사용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살이 배바자해서 청바지 기증해요

제가 청바지를 좋아해서 많이 갖고 있는데, 최근 들어 살이 많이 빠지는 바람에 맞지 않은 바지들이 너무 많네요. 주변에 줄 사람도 없고, 어디 좋은 곳 없나 생각하다가 아름다운가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적은 수량이지만 받아주세요

온라인으로 아이들 헤어 제품을 판매하다 접었는데 16일 이사를 앞두고 정리를 하다 보니 한 박스가 남아있네요. 아이들에게 작지만 나눔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싶고 작은 보탬도 되었으면 합니다.

*위 사연은 온라인 기증 신청을 통해 들어온 기증천사님들의 사연을 모은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친구

유니레버코리아는 아름다운가게 창립 직후인 2002년 11월에 처음 인연을 맺은 이래 지금껏 다양한 나눔과 봉사 실천에 나서고 있는 대표적인 아름다운가게의 파트너 기업이다. 지금까지 〈아름다운토요일〉을 총 11회 개최했으며, 아름다운가게의 설날 나눔행사인 〈아름다운 나눔보따리〉에도 빠짐없이 동참하고 있다. 유니레버코리아가 이렇게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데에는 이민선 부사장의 노력도 적지 않았다. “유학시절 옥스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난한 유학생에게 저렴하게 필요한 물건을 살 기회였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그 물건들을 다시 기증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언제 이런 곳이 생길까 했는데, 아름다운가게가 문을 열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우리 유니레버코리아의 직원들도 봉사하고 기증하는 과정을 즐겨워해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환경을 위해서도 좋지만, 그런 공익적 활동을 더욱 생동감 있게 즐기며 참여한다는 데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선 부사장은 최근에 대학생 아들에게도 아름다운가게에서 봉사를 하도록 권했다고 한다. 가족도 사회도 그리고 기업도,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기에 서로 나누고 함께 행복해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민선 부사장_유니레버코리아



사랑도
번역이 된다고요

스페인어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박선홍 씨는 요즘 새로운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이러저런 봉사활동을 경험했지만 이번에는 좀 특별하다. 바로 번역봉사.

번역이 어떻게 봉사가 되겠느냐고 하겠지만, 외국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좋은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서 문서번역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다.

평소 외국어 공부에 관심이 많았던 박선홍 씨는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재능으로 새로운 봉사에 참여한다는 게 참 좋다.

“물론 처음엔 책상에 앉아 혼자 봉사를 한다는 게 좀 어색하기도 했죠. 하지만 참여를 해보니까 중요한 활동이란 걸 알겠더군요.

오히려 시간에 얼마이지 않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가장 힘든 부분은, 제가 번역한 문서가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 자신이 없을 때가 가끔 있어요.”

박선홍 씨는 쾌활하고 웃음이 많다. 자신의 일에서도 봉사에서도 웃음이 떠나질 않는 참 예뻐 보인다.

박선흥_번역봉사단





젊음, 나눔을 만나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적인 활동으로 지난 5년간 대학생 공익활동에 있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온 〈아름다운공작단〉. 나눔, 환경, 봉사를 주제로 다양한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해 옮기면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시대 건강한 대학생들이다. 최윤현, 송주호, 최유빈 씨(왼쪽부터)는 〈아름다운공작단〉에서도 각 기수별 대표를 맡아 활동해 왔다. 캠페인이 진행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또래 젊은이들에게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지 고민하고, 함께 활동하고 있는 동료들에게도 보다 큰 보람을 전해주려는 특별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캠페인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부터 따뜻한 마음과 넓은 시야를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 안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 참 좋고, 무엇보다 평생 함께하고 싶은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행복해요!” 나눔과 사랑을 알고 있는 참 똑똑한 젊은이들. 우리의 미래가 그들의 맑은 눈빛 속에 담겨있다.

최윤현, 송주호, 최유빈_아름다운공작단

버려진시장의 안방마님

박영실 씨는 매주 토요일이면 독섬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리는
〈독섬 아름다운나눔장터〉에서 든든한 안방마님으로 통한다.

장터 초창기부터 참여해 지금까지 꾸준한 활동으로
다른 봉사자들의 모범이 되어 왔다.

장터는 매서운 추위와 찌는 듯한 한여름 더위를 견뎌야 하고,
빗줄기와 강바람 속에서도 행사를 무사히 진행시켜야 하는 어려운 자리다.

“좀 일이 고되다고 느끼는 날도 있고, 몸이 좋지 않은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장터에 나오는 분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도록 하는 일이라서

늘 최선을 다 하려고 해요. 요즘은 아이들 손을 잡고 찾아오는
젊은 부부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나눔과 환경에 대해
직접 체험하고 배우고 돌아간다는 게 참 큰 보람이죠.”

박영실 씨의 열정은 어느 젊은 봉사자들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힘들어하는 동료 봉사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마음 넓고 포근한 사람이다.

박영실_ 독섬 아름다운나눔장터 자원봉사자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좋아요

이병진 씨는 아름다운가게의 <그린스푼너(Green Spooner)>다. 십사일반의 마음으로 정기기부에 동참해 국내외 소외이웃들을 돕는 기부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병진 씨는 기부란 참 쉽고도 어려운 것이라고 말한다.

“정기기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참 오래 전이에요. 독일에서 공부를 할 때부터였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한국으로 돌아온 10여 년 전부터 실천에 옮길 수 있었죠.

몇몇 단체에 정기기부를 하고 있고, 아름다운가게도 그 중 하나입니다.

나처럼 평범한 사람도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아요.”

이병진 씨는 아름다운가게가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통해 기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다만, 아직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한다는 조언도 빠트리지 않았다.

이병진_정기기부자

꿈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치즈만 구름 씨가 한국에 온 것은 4년 전이다. 한국인 부인과 네팔에서 처음 만난 후, 한국과 네팔을 오가며 연애를 하다 결혼에 골인해, 지금은 한국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 그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아름다운가게 경기그물코센터>에서 근무하는 아름다운가게의 활동가다. 매일 수거트럭과 택배로 도착하는 소중한 기증품을 분류하고 손질하는 되살림 작업에 참여한다.

“일이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즐거운 일이 어디 또 있을까 하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서 기증하겠지 생각했지만, 오히려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어서 기증에 나선다는 것을 알고 더욱 보람을 느끼게 됐습니다.”

치즈만 구름 씨는 언젠가 고향 네팔로 돌아가면, 그곳에서도 아름다운가게처럼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 일은 돈을 벌기 위한 일을 넘어 '꿈을 버는 일'이 되었다.

치즈만 구름(Chij man Gurung)_아름다운가게 활동가



아름다운가게 매장 소식

홍보캠페인팀



안성점 개점

지난해 11월 19일 경기도의 끝자락 안성에 안성점이 개점했다. 안성점은 안성시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1년 반의 노력 끝에 탄생하게 된 매장으로, 나눔장터, 일일 찻집, 창고 및 물건 기증, 자원봉사자 모집, 후원자 모집 등 매장개설추진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했다. 또한 안성점은 지역복지 개선을 위한 사명을 가진 매장으로 매장 수익금의 전액을 지역 내에 분배하는 지역복지 특화 매장이다.

• 주소 경기도 안성시 영동 429-3번지 1층 • 전화 031-676-0676



노원공릉점 개점

지난 1월 22일 노원공릉점이 개점했다. 노원공릉점은 노원구 지역에 처음으로 개설된 매장으로, 노원구의 적극적인 친환경·재활용문화 활성화 정책을 기반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또한 노원구는 재활용과 나눔의 생활화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한 지역으로, 아름다운가게가 지역사회를 위해 잘 안착될 수 있기를 바라는 긍정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노원구 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다.

• 주소 서울 노원구 공릉동 494-15번지 영진빌딩 1층 • 전화 02-906-2299

연수구청점 개점

지난 3월 7일 인천 연수구청점이 개점했다. 연수구청점은 구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비용 후원 등을 통해 자리 잡게 되었으며, 구청의 각별한 관심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또한 연수구청점은 인천 연수구의 첫 번째 매장으로 월 1회 연수구청광장에서 나눔장터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3동 923-5(연수구 원인재로 115) • 전화 032-815-9004



강동고덕점 개점

강동구청의 도움으로 지난 3월 30일 강동고덕점이 개점했다. 시원하고 넓은 주차장 옆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강동고덕점은 지자체와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공익마케팅을 진행중에 있다. 특히 매월 둘째, 넷째 주에 열리는 강동버룩시장과 강동구 보육 엑스포 등에 참여하며 강동구의 재활용, 재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주소 서울 강동구 고덕동 302번지 • 전화 02-3426-5004



김포점 개점

지난 4월 20일 김포시의 첫 번째 매장인 김포점이 문을 열었다. 김포점 매장은 김포시와 녹색김포실천협의회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김포 공설운동장에 탄생할 수 있었다. 또한 김포점은 매월 둘째, 넷째 주에 열리는 버룩시장에 참여하여 김포 시민들에게 아름다운가게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김포지역에서 나눔과 순환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 주소 경기 김포시 사우동 290 김포공설운동장 3,4호 • 전화 031-996-0939



창원팔용점 개점

모란여성병원의 공간기증으로 지난 5월 11일 창원 의창구 팔용동에 창원팔용점이 개점했다. 창원팔용점은 공간기증의 의미를 살려,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소외여성들에게 수익금을 후원할 예정이다. 창원의 두 번째 매장이자 경남 지역의 여섯 번째 매장으로 지역 나눔과 순환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42-1 웰빙플라자 심산유곡점빌방 1층 • 전화 055-295-8001



부산사하점 개점

부산에서는 일곱 번째로 지난 6월 1일 사하구 괴정동에 부산사하점이 탄생했다. 부산사하점은 부산지하철 대티역 바로 앞에 위치하여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유아용 장난감 등 부피감 있는 다양한 잡화들이 판매되고 있다. 서부산권을 대표하는 매장으로, 나눔과 순환을 실천하는 동네 사랑방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주소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314-24번지 1층 • 전화 051-202-8701



용인죽전점 개점

지난 7월 1일 용인시에는 처음으로 용인죽전점이 개점했다. 이날 개점 행사에는 용인시청과 인근 아파트의 부녀회가 함께 참여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다. 특히 용인죽전점은 아파트 밀집 지역의 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누구나 쉽게 오고 가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 용인죽전점은 지역사회와 함께 이웃에 나눔을 실천하는 매장으로 성장할 예정이다.

• 주소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54-1 1층 • 전화 031-889-3535





통영점 개점

지난 7월 2일 통영시 종합 복지관과 김종봉 신부님의 노력으로 통영점이 개점했다. 통영점은 문화거리에 위치하여, 통영시민 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매장에 방문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통영점 매장 2층에는 통영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북카페가 위치하고 있어 통영의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며 차를 마실 수도 있다. 통영 종합복지관과의 공동운영을 통해 지역에 보다 많은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 주소 경남 통영시 중앙동 125번지 1층 • 전화 055-642-2004



부산구포점 이전

2007년 5월 부산 동의대의 씨앗기금으로 부산 북구 화명동에 개점했던 부산화명점이 지난해 7월 8일 북구 구포동으로 이전 했다. 매장명 역시 매장이 위치한 지역에 맞춰 부산화명점에서 부산구포점으로 변경되었다. 특히 부산구포점은 언제나 평균 50명 이상의 활동천사님들이 꾸준히 활동해 주시는 천사님들의 역량이 돋보이는 매장이자, 또한 이전한 매장은 구포역과 가까워 매장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다.

•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51 • 전화 051-363-8701



전주서신점 이전

지난해 9월 3일 전주풍남문점이 전주의 신도시인 완산구 서신동으로 이전 개점하였다. 개점식에서는 '전주시와 함께하는 아름다운하루' 행사가 함께 진행되었으며, 특히 서신동 주민자치센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 또한 서신동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이전 기념 나눔장터를 개최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전주서신점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지역의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93-1 • 전화 063-286-3004



일산점 이전

2004년 3월 SK브로드밴드(舊 하나로텔레콤)의 공간 기증으로 문을 열었던 일산점이 지난해 10월 11일 일산 서구 주엽동으로 이전했다. 많은 분들의 기증품으로 채워진 아름다운가게 일산점은 일산 시민들의 나눔과 순환의 공간으로 지역 사랑방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38번지 에비뉴상가 1층 1066호 • 전화 031-915-4004



성미산책방 이전

2005년 신촌에 자리 잡았던 신촌책방이 작년 11월 17일 망원동 성미산 마을커뮤니티로 옮겨 왔다. 성미산 책방에서는 아이들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아동도서코너와 마을 커뮤니티에서 제공한 마을서재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서재에서는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다. 또한 매장 폐점 이후에는 마을 소규모 모임을 위한 공간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어, 마을의 지식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주소 서울 마포구 망원2동 474-2번지 SK빌딩 2층 • 전화 02-392-6004



서울역점 이전

2004년 6월 서울역사 내에 개점했던 서울역점이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역 14번 출구 앞으로 이전했다. 서울역점은 위치 특성 상 서울 방문객 뿐만 아니라 지방 방문객도 많아 전국적인 매장으로 활성화 되어 있다. 또한 새로 이전한 매장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방문이 편리하며, 이전보다 확장된 공간으로 더 많은 기증품들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매장 앞 공간에서는 크고 작은 각종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 주소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54 1층 • 전화 02-363-8778

대구수성점 이전

2004년 동아백화점의 공간기부로 문을 열었던 대구수성점이 지난 3월 25일 이랜드리테일과 동아백화점의 씨앗 기금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대구수성점은 지난 7년 간 시민 11만 명으로부터 기증받은 35여만 점의 기증품을 재사용하였고, 연인원 200여명이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 대구에서 나눔문화 확산과 환경보호에 큰 성과를 이뤘다. 앞으로도 건강한 소비문화와 지역 내 나눔과 순환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 주소 대구 수성구 범어동 806-99번지 • 전화 053-746-2004



분당이매점 이전

2005년 4월 KT분당지사의 공간기증으로 개점했던 분당이매점이 6년 만인 지난 4월 8일에 성남아트센터 내로 이전했다. 새로 이전한 매장은 성남아트센터의 적극적인 공간 협조를 통해 개점이 가능했으며, 더 넓어진 공간으로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다. 이날 개점식에서는 여러 내빈들과 함께 지난 6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행사를 가졌다.

•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성남대로 808(야탑동 757) 성남아트센터 큐브프라자 1층 • 전화 031-707-1024



전주삼천점 이전

2007년 4월 전주 평화동에 개점했던 전주평화점이 지난 5월 21일 완산구 삼천동으로 이전했다. 개점식에서는 '진로하이트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이 진행되는 등 다양한 행사로 지역 주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새로운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전주삼천점은 전주지역의 따뜻한 생활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605-1 • 전화 063-286-3010



서초점 이전

2003년 9월 개점한 서초점이 지난 6월 2일에 이전했다. 서초점은 자원봉사자들만 운영되는 자립형 매장이다. 매장 내 작은 갤러리에서 유명인사의 기증품, 아름다운가게로 기증된 예술품을 전시 판매하는 등 예술특화매장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매주 화요일에는 경매를 통한 기증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67-6 하수빌딩 1층 • 전화 02-594-7854



대전탄방점 이전

2004년 9월 개점했던 대전둔산점이 지난 9월 1일 서구 탄방동으로 이전 했다. 개점일에는 다양한 행사와 떡 나눔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매장을 방문했다. 헌신적인 활동천사님들의 봉사와 이전 매장보다 넓고 쾌적한 실내가 더 많은 시민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 주소 대전시 서구 탄방동 53-5 • 전화 042-471-3009



마산자산점 이전

2004년 9월 대우백화점의 공간기증으로 문을 열었던 마산대우점이 지난 9월 3일 마산자산점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마산자산점의 개점은 260여 분의 시민과 기업 및 단체의 후원금으로 모아진 씨앗 기금이 큰 힘이 되었다. 마산자산점은 경남지역에서는 처음 생긴 경남1호점으로서 많은 활동천사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반이 되고 있다.

•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302-4번지 웰빙스파 1층 • 전화 055-244-5044



아름다운가게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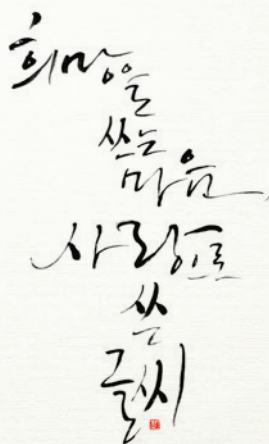


나눔보파리로 시작하는 힘찬 2011년!

지난 1월 23일 서울 동국대학교 대운동장에는 매서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9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모여들었다. 서울지역 행사는 동국대학교 대운동장에 집결한 자원봉사자 900여명이 1,200여개의 나눔보파리를 차량 300여대로 직접 전달했다. 서울 이외에도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32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전달된 나눔보파리는 총 4,700개, 참여 봉사자만 3천여 명에 달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온가족이 함께 나선 봉사자부터, 기업 임직원들이나 동호회 회원들의 단체봉사 등으로 다양했다. 이들 봉사자들은 직접 쓸 쓸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찾아가 나눔보파리를 전달하고 새해 덕담을 나누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힘찬 2011년을 출발하는 의미를 되새겼다.

한편 전달된 나눔보파리를 꾸리는 사전작업에는 정세진, 홍소연, 김윤지 KBS 아나운서가 동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희망을 전하는 캘리그래피 전시회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6일까지 마포구 상수동 인터페이스 갤러리에서는 100인의 캘리그래피 전시회 '희망을 쓰는 마음, 사랑으로 쓴 글씨'가 시민들과 언론의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 전시회에서는 국내 명사들이 새해를 맞으며 전하는 희망 메시지를 캘리그래피 강병인 씨가 100개의 작품으로 제작해 전시됐다. 한글 본연의 힘과 아름다움을 최대한 표현하면서 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살리고, 여기에 메시지를 전하는 명사의 마음까지 조화시킨 작품들이다.

캘리그래피(Calligraphy)는 '아름다운 손글씨'라는 의미로 글씨를 통한 예술작품을 일컫는다. 단순히 글씨로 의미를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창조적이고 독특한 예술적 표현을 담은 손글씨 작품을 말한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들은 2011년 현재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사들을 총망라해 그 면면이 무척 다채롭다. 공지영, 김훈, 조정래, 도종환, 정호승 등 소설가와 시인은 물론, 김재동, 이효리, 장기하, 2PM, 조승우 등 인기 연예인들도 대거 참여했다. 또 남경필, 이정희, 나경원, 노회찬 등 정치인, 여기에 시골의사 박경철, 국제구호활동가 한비아, 경제학자 장하준, 연극배우 손숙, 박원순 변호사와 조국 교수도 함께했다. 전시회 첫날 기념식은 정세진 KBS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강병인 씨의 작품 제작 시연과 가수 장재인 씨의 공연 등으로 꾸며졌다.

한편 이번 전시회를 통한 작품판매 수익은 국내의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돕는 데 사용됐다.



동일본대지진 긴급지원

아름다운가게는 지난 3월 11일 일본 미야기현과 이와테현 등 일본 동북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지역을 돕기 위한 긴급모금을 진행했다. 아름다운가게는 지진발생 나흘 후인 15일에 긴급지원금 1만달러를 우선 지원하고, 아름다운가게 전국매장 및 온라인 등을 통해 약 2천만원을 모금해 지원했다. 모금된 금액은 피해를 입은 재일조선인학교인 '우리학교'를 포함해 피해지역 이재민들을 돕는 데 사용됐다.



아름다운가게 김선우 상임이사 취임

지난 4월 20일 아름다운가게의 3대 상임이사로 김선우 씨가 취임했다. 아름다운가게 이사회는 김선우 신임 상임이사가 지역 운영위원장으로 수년간 활동해오며 대도시 중심의 아름다운가게 활동을 중소도시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아름다운가게의 3대 상임이사로 만장일치 임명을 결정했다.

김선우 상임이사는 취임사에서 “아름다운가게가 생활 속 나눔과 환경 운동을 시작한 지 9년이 됐다. 이제 가장 신뢰 받는 비영리공익단체이자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더욱 새롭고 다양한 역할을 해 나갈 10년을 준비할 시기다. 이런 중요한 때에 상임이사로 일하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우리 사회의 주인공인 시민들의 나눔과 환경을 위한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부지런히 달려가는 아름다운가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십시일반 하는 마음으로 '그린스푼 캠페인'

여러 사람이 한 숟가락씩 모아 한 사람 몫을 만든다는 십시일반의 마음을 담은 '그린스푼 캠페인'이 시작됐다.

매달 1만원의 정기후원을 통해 누구나 '그린스푼너(Green Spooner)'가 될 수 있는 이 캠페인은 국내 소외아동들의 다친 마음을 돌보는 '소외아동 정서지원 프로젝트', 네팔과 방글라데시의 홍수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나마스페 갠지스 프로젝트', 베트남의 소수민족 어린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선물하는 '굿모닝 베트남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는 모금 캠페인이다.

그린스푼너가 되면 아름다운가게의 나눔프로젝트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기부후원자 초대행사인 '나눔알음자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아름다운가게 롯데카드 탄생

아름다운가게와 롯데카드는 지난 3월 9일 업무제휴 조인식을 갖고 '아름다운가게 롯데카드'를 선보였다.

이 카드는 사용할 때마다 전체 사용액의 0.5%가 자동으로 적립되고, 매월 적립된 금액이 아름다운가게로 전달돼 국내의 소외계층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되는 기부카드다. 기부카드는 누구나 간편하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 새로운 방식으로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롯데카드 사용자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적립된 포인트를 기부하고 싶을 때 이를 아름다운가게로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조인식에서는 아름다운가게 손숙 대표가 '아름다운가게 롯데카드' 1호 가입자로 직접 카드를 신청했다.



함께 나누는 맛있는 비빔밥

지난 5월 28일 아름다운가게 안국점에서는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네팔과 방글라데시 기후난민들을 돕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개최됐다.

안국점 앞마당에 모인 시민들은 각자 기부금을 내고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비빔밥을 함께 나눠먹으며 즐겁게 나눔을 실천했다.

특히 흥을 돋우기 위한 풍물놀이와 기념공연을 안국동 주변 시민들이 직접 맡아 진행해 이웃들의 숨은 재능도 함께 나눴다. 또한 인근 안국동과 삼청동의 10여 개 점포들은 자신의 가게를 이용할 수 있는 50여 만 원 상당의 특별상품권을 제공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부금은 총 100여 만원에 달했고, 전액 네팔과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농부 및 소외계층의 자립을 돕는 데 사용됐다.



아름다운 나눔결혼식

5월 1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부들을 위한 나눔결혼식이 열렸다. Hand in Hand 희망 웨딩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결혼식은, 유명 웨딩드레스 디자이너인 이명순 씨로부터 기증받은 최고급 웨딩드레스를 저렴하게 대여해주고, 그 수익금을 적립해 어려운 처지의 이웃들의 결혼식 지원을 준비해온 아름다운가게 양재점의 결실이다.

특히 이번 결혼식은 준비과정에서 진행까지 모두 다양한 후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져 더욱 뜻 깊다. 킨텍스는 웨딩홀 공간 무상지원과 함께 결혼식을 위한 각종 용품과 이날의 피로연도 함께 지원했다. 결혼식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 축하공연은 어린이 오케스트라인 '맨하탄 유스 오케스트라'의 재능기부로 이뤄졌고, '고양시개인택시조합'에서는 4쌍의 신랑 신부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날 하루 동안 웨딩카를 지원해주었다.



예비 사회적기업가들의 힘찬 출발!

아름다운가게는 지난 5월 2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비즈니스적 성공으로 해결해 나갈 예비사회적기업가를 후원하기 위한 '뷰티풀 펠로우(Beautiful Fellow)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발했다.

3개월에 걸쳐 진행된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 예비 사회적기업가로는, 우리 사회의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제시한 강성태(29) 씨, 새로운 개념의 모금방식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공익에 이바지하는 모델을 제시한 유영석(31) 씨, 해체된 도시 지역의 마을공동체를 복원시키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유호근(36) 씨, 마지막으로 농촌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모델을 제시한 진재선(45) 씨 등 4명이다.

뷰티풀 펠로우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지속가능성과 혁신성을 두루 갖춘 사회적기업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선발된 4명에게는 안정적인 생활 환경 속에서 현재의 사업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향후 2년에서 3년 매달 15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연수 기회를 마련해 해외의 우수한 사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아름다운가게의 각종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준비와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정기적으로 사업의 진행상황을 건설칭해 새롭게 나타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에도 나서게 된다.



성년의 의미 다시 생각해요!

아름다운가게의 대학생 공익캠페이너 모임인 아름다운공작단이 올해로 다섯 번째 '아름다운 성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7개 대학 캠퍼스에서 과연 어느 대학이 가장 열정적으로 나눔 실천에 나서는지를 알려주는 '착한경쟁' 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또 성년의 날 당일인 16일에는 홍익대학교 앞 홍익공원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나눔 공연도 펼쳤다. 성년의 날을 맞은 젊은이들에게 축하를 보내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공연에는 루싸이트 토끼, 조길상, 네이처 등 유명 인디밴드는 물론 대학생 오케스트라에서 대학생 기타리스트까지 다양한 출연진이 모두 재능기부로 참가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총 270여만원의 기부금과 기증품들은 캠페인을 펼치기 전에 선정된 소외 이웃이나 기관을 돕는 데 사용됐다.



5년째 아름다운 책나눔

지난 6월 18일 서울 동숭동헌책방에서는 '머니투데이와 함께 하는 함께하는 아름다운토요일' 행사가 열렸다. 언론사로서는 유일하게 지난 2007년부터 5년째 아름다운토요일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머니투데이, 올해도 임직원 및 기자들이 자신이 읽었던 책을 기증하고 일일 자원봉사에도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머니투데이 지면에 아름다운가게의 네팔 아름다운도서관 프로젝트를 위한 도서기증을 안내하는 공익광고를 지원하고, 관련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결혼과 나눔, 참 잘 어울리죠!

아름다운가게와 듀오웨드가 함께 '뷰티풀웨딩' 캠페인을 진행했다. 뷰티풀웨딩 캠페인이란, 예비부부들을 대상으로 결혼 전 사용하던 물품을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기증하는 캠페인이다. 결혼을 앞두고 혼수를 마련하면서 새로 생활용품이나 의류 등을 구입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결혼 전에 사용하던 물건들은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냥 버리거나 창고에 넣어두기만 하기에는 이 물건들이 너무 아까운 것이 사실, 이 물건들을 더욱 뜻 깊게 사용하자는 캠페인이다.



뷰티풀마켓 탄생

아름다운가게가 공익상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뷰티풀마켓'을 선보였다. 공익상품이란, 공정부역, 사회적기업, 장애인 자활단체, 친환경공동체 등 사회 약자를 돕고 환경에 기여하기 위해 생산된 상품이다. 공익상품을 구매하면 그 수익금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전체로 환원되기 때문에 윤리적 소비 붐을 타고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뷰티풀마켓(www.beautifulmarket.org)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편리한 공익상품 판매 매개체로 기획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생산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해 아름다운가게가 검증된 공익상품을 매입한 후 홍보와 판매, 배송까지 도맡아 진행해주게 된다.



한국의류산업협회, “이런 나눔 어떤가요?”

한국의류산업협회는 지난 6월 남성복, 여성복, 아동복 등 총 1,339점, 가격으로는 2억8백만원 상당의 의류를 아름다운가게로 기증했다. 이 의류들은 지식경제부 지원으로 한국의류산업협회가 해외의 의류산업 트렌드 연구와 신제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미국 유럽 등지에서 구입한 샘플이다. 우리 의류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임무'를 훌륭히 마치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의 임무'를 다시 한번 부여받은 셈이다.



드라마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가게

2011년 상반기 주말드라마 중에서 눈에 띄는 시청률을 기록한 MBC 주말연속극 '반짝반짝 빛나는'에 아름다운가게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드라마는 아름다운가게의 홍보대사이기도 한 김석훈 씨가 주인공 '승준' 역으로 출연해 더욱 뜻 깊다. 3월 방송된 19회와 8월 방송된 50회, 두 차례 등장한 아름다운가게는 부도덕한 어머니와 순수한 연인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인공 승준이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어려운 이들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고, 그 속에서 사랑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했다.

아름다운 파트너

'뷰티풀 파트너'는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국내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환경을 위한 실천으로
우리 사는 세상을 조금씩 아름답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아름다운가게의 소중한 친구를 말합니다.

뷰티풀 파트너 / 단체

기업/단체명

가림로타리클럽
가톨릭대학교
갈디마코리아
강북경찰서
강북우체국
캡코리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게스 코리아
경남기업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자원봉사센터
경상북도청
고도소프트

고백교회

고성교육지원청
고은미소치과 네트워크
공군 제1전투비행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공정무역 카페 나눔
광주MBC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 북구청

광주광역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광주광역시청

광주남구청
광주대성학원
광주드림
광주보건대학
광주북구자원봉사센터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함께한 내용

부산구포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대학축제 나눔바자회 장소 및 자원 기부
아름다운나눔바자회 행사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
미아점 8주년 아름다운 하루 참여
미아점 7주년 아름다운 하루 참여
임직원 의류 기증
부산명륜동역점 가족봉사단과 함께하는 나눔행사 개최
부산부전점 아름다운 토요일 참여
나눔바자회 물품기증 및 자원 기부
담심리점 개점기념행사 참여 및 자원봉사
경남지역 전매점 아름다운 토요일 개최
대구남산점 아름다운 하루 참여
대구경북본부와 공동사업 나눔장터에서 기부 참여 및 물품지원
대구경북본부 나눔장터 통한 매장개설 씨앗기금 기부
공익상품 쇼핑물 뷰티풀마켓 호스팅 서비스 기부
아름다운 토요일 통해 물품기증 및 자원봉사 참여
광주봉선점 2주년 행사 파트너로 참여
사천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공정무역 커피 홍보지원 및 서울지역 매장 소품봉투기증
광주첨단점 나눔장터 참여
기부자 감사선물로 연속 구매
순천매곡점 공정무역의 날 기념 행사
2010 빛고를 아름다운 세상 시민자선축제 공동주최
2011 광주시민 아름다운 나눔의 날 시민장터 공동주관
광주역점 아름다운 하루 참여
광주광역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광주역점 아름다운 하루 참여 및 청소년상담 자원봉사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0 빛고를 아름다운 세상 2010 광주시민 아름다운 나눔의 날 공동주관
2010 빛고를 아름다운 세상 시민자선축제 공동주최
광주봉선점 아름다운 하루 참여
광주쌍촌점 아름다운 토요일 개최
광주역점 아름다운 하루 참여
기사를 통해 광주광역시 홍보에 도움
광주첨단점 아름다운 하루 참여
가족봉사단 광주역점 일일가게 개최
광주광역시청 행사시 동화구연 재능기부
광주광역시청 책 나눔바자회 행사 통해 어린이목 천여그루 기증
광주쌍촌점 화분기증특별전 개최
자사 식기류 기증
개나리 봉사회 광주역점 아름다운 하루 참여
별책부록영화관 진행 통해 광주광역시 재능기부 및 홍보활동에 도움
광주광역시청 정기 도서기증
2010 빛고를 아름다운 세상 단체장터참가
난치병어린이지원기금 기부
부산부전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개봉점 2주년 기념 아름다운 하루 진행
부산구포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목포원도심점 아름다운 하루 2주년 진행
대구남산점 아름다운 하루 참여
명학점에서 정기 자원봉사 및 일일가게 진행
부산금정점 아름다운 토요일 참여
2010 빛고를 아름다운 세상 난치병어린이지원기금 기부

금당초등학교초등학교	광주생촌점 아름다운나눔장터 기부금
금장구 아파트부녀연합회	부산금정점 아름다운 토요일 참여
금호차아파트 광주봉선점	아름다운 아파트 캠페인 참여
기획재정부	임직원 물품 기증
김연장법률사무소	아름다운 토요일 통해 물품기증 및 자원봉사 참여
김현중 팬클럽	아름다운 하루 통해 물품기증
꽃다지	하남점 화분기증
남구자원활동센터	광주봉선점 아름다운 토요일 개최
남산점 운영위원회	대구남산점 아름다운 하루 참여
남해교육지원청	사천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사하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내일신문 수도권3본부	일산점 이전 및 행사 등 홍보 지원
네오위즈	청림가점 자산배치회 개최 및 자원봉사
노경숙 바다화인디자인	분당이매점 특별기증전 참여
노리터남대점	공정무역 제품 판매 공동캠페인 실행
노보텔	호텔 내 기증함 설치
노컷뉴스	이사가점 캠페인 파트너
농협 하나로마트	금곡점 부산구포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농협화경지점 부녀회	부산구포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네트나무도서관재단	공정무역 제품 판매 공동캠페인 실행
대경파미르아파트	사천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대구 달서구청	대구경북본부 헌교복나눔행사, 착한버룩시장 참여
대구 동화사	승사축제 시 나눔참여
대구 북구청	대구경북본부 헌교복나눔행사, 착한버룩시장 참여
대구 수성구청	대구경북본부 착한버룩시장 참여
대구 중구청	대구경북본부 나눔보따리 자원봉사, 헌교복나눔행사
대구시청	대구경북본부 자원순환의 날 나눔보따리 장소 지원
대구중여성합창단	대구남산점 아름다운 토요일 개최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남산점 아름다운 하루 참여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본부 나눔행사 시 물품지원
대동병원	부산명륜동역점 아름다운 토요일 참여
대림산업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기증물라이 개최
대림아파트	광주생촌점 특별기증전 참여
대우인터내셔널	아름다운 토요일 통해 물품기증 및 자원봉사 참여
대우증권	창원중앙점 특별판매전 개최
대지	서울지하철 2호선 스크린도어 광고 기부
대한어머니수성구지회	대구남산점 아름다운 하루 참여 및 단체 자원봉사
대한통운	무료 택배서비스 제공
대상트코리아	희망의 운동화 기부캠페인 진행
도시철도공사담십리승무관리소	담십리점 야외행사 참여 및 자원봉사
동래로타리클럽	부산명륜동역점 아름다운 토요일 참여
동부어닝	아름다운가게 매장 어닝설치 후원
동신대학교한방병원	목포지역 아름다운 하루 참여
동아일보	동아미래세대회 뷰티플레이스 파트너
동우화안검	아름다운 토요일 통해 물품기증 및 자원봉사 참여
동일고무벨트	부산금정점 아름다운 토요일 참여
동화마루	아름다운 하루 통해 임직원 기증 및 자원봉사
두레생협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정무역 제품 판매 공동캠페인 실행
두성종이	'희망을 쓰는 마음, 사랑으로 쓴 글씨' 캘리진사회 장소 (인디메이퍼갤러리) 지원
듀오	뷰티플레이스 캠페인 파트너
디자인아트	공익상품 쇼핑물 뷰티풀미켓 디자인 재능기부
딜라이트코리아	가중사업점 특별물품기증 참여
레드캡투어	아름다운 토요일 통해 물품기증 및 자원봉사 참여
렉서스	YM 모터스 대구경북본부로 자선갈라쇼 통한 수익금 기부
로알팰리스 아파트	분당이매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로젠택배	무료 택배서비스 제공
로티보이코리아	자사 식품 무료 교환권 후원
롯데면세점	아름다운 토요일 통해 물품기증 및 자원봉사 참여
롯데백화점	자사제품 기증
롯데백화점 광주점	2010 빛고를 아름다운 세상 시민자선축제 공동주최
롯데백화점 일산점	백화점 내 유문실물 수집 후 정기 기증 및 야외행사 장소 지원
롯데슈퍼	아름다운 하루 통해 임직원 기증 및 자원봉사
롯데슈퍼 광주 전 지점	소와아동정서지원 기부캠페인 모금파트너
롯데정보통신	아름다운 토요일 통해 물품기증 및 자원봉사 참여
롯데카드	아름다운가게 기부카드 개발 및 포인트 기부
롯데홈쇼핑	공정무역 제품 판매 공동캠페인 실행 및 정기 물품기증
루시드프로모커뮤니케이션즈	소와아동정서지원 프로그램 후원
리바이스 코리아	아름다운가게 공동 프로모션 기획 및 홍보, 나눔바자회 사용 한창바지 기부
매산중학교	순천매곡점 아름다운 나눔학교 참여
매일식품	순천매곡점 특별물품기증
메리츠증권권	아름다운 토요일 통해 물품기증 및 자원봉사 참여
메리츠화재	아름다운 토요일 통해 물품기증 및 자원봉사 참여 나눔보따리 후원
모토로라	임직원 의류 기증
목포마리아회고등학교	아름다운 나눔학교 진행
목포명도복지관	목포지역 아름다운 토요일 참여
목포미르치과병원	어린이버룩시장 행사비 지원과 아름다운 토요일 진행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목포지역 아름다운 토요일 참여
목포시청	아름다운 나눔장터 참여
무안군 풀잎농원	유기농산물 특별 기증
무안남부신협	목포지역 아름다운 토요일 참여
문정여자고등학교	광주역점 아름다운 나눔학교 참여
문화공방DKB	장남진물축제 나눔바자회 장소 및 자원 기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 대량기증
미래비전	하남지역 아파트 내 광고 기부
미카 초콜렛 카페	창원중앙점 특별 나눔행사 개최
바르게살기협의회	분당이매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박스터 코리아	아름다운가게 나눔바자회 물품기증 및 자원 기부
법률사무소 황금율	창원중앙점 아름다운 토요일 참여
법무법인 지평지성	아름다운 토요일 통해 물품기증 및 자원봉사 참여, 사회작가업 지원프로그램 법률지원
법왕장사	부산금정점 아름다운 토요일 참여
법제처	어린이 법제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하루
베니건스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기증캠페인 및 행복한 반상 초대 진행
베스트 빈	공정무역 제품 판매 공동캠페인 실행
보니파	대구남산점 의류 정기 기증
봉선동주민자치센터	광주봉선점 아름다운 하루 참여
부동산114	이사가점 캠페인 파트너
부산건축사회	부산명륜동역점 거주년행사 참여
부산경찰청외사과	부산부전점 나눔바자회 진행
부산북부교육지원청	부산구포점과 아름다운 나눔협약 체결
부산사하구청	부산사하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부산시청공식블로그 '쿨부산'	시민블로거들과 함께하는 나눔행사 참여



부산은행 구포지점	부산구포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소니코리아	재사용 하드디스크 기증
부산전자종합시장	부산부전점 매장공간 기증	수 인터내셔널(BCBG)	나눔바자회 자원 기부
부산정보대학	부산구포점 아름다운 토요일 참여	수카라	공정무역 제품 판매 공동캠페인 실행
북구 연합 부녀회	부산구포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수피아여자고등학교봉사단	광주봉선점 특별기증전 개최
분당 I-PARK 아파트	분당아매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수협은행	아름다운 토요일 통해 물품기증 및 자원봉사 참여 포인트 기부 캠페인
분당중학교	분당아매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순천 YWCA	순천매곡점 아름다운 토요일 개최
불스원 & 슈마커	자사제품 기증 및 임직원 자원봉사	순천교차로	순천매곡점 야외 나눔장터 및 홍보활동 지원
블라썸	공정무역 제품 판매 공동캠페인 실행	순천미르치과병원	순천매곡점 어린이 베품시장 후원
비루투오스	오케스트라 공연 시 아름다운가게 국제사업 소개 및 공정무역 커피 판매 자원봉사	순천중앙교회	순천매곡점 아름다운 토요일 개최
비즈멜론	아름다운가게 매장 음악방송 후원	스타일빈	고객 참여 기증캠페인 진행
빅이슈코리아	과월호 기부 및 바타 광고 기획	시티재활병원	광주봉선점 아름다운 하루 참여
빈센트반고호	공정무역 제품 판매 공동캠페인 실행	식약청	광주첨단점 특별기증전 개최
사랑가족봉사단	광주봉선점 아름다운 토요일 개최	신도리코	아름다운 하루 통해 임직원 기증 및 자원봉사
사랑방신문사	광주전남본부 소외아동정서지원 기부캠페인 메인파트너, 빛고를 아름다운 세상 공동주관	신세계 영등포점	신세계 영등포점 고객 시은 나눔바자회 장소 및 자원 기부
사랑봉사단	광주생촌점 아름다운 토요일 개최	신세계 I&C	임직원 기증 참여
사천교육지원청	사천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신세계 죽전점	아름다운나눔파티 후원금 기부
사천국화로타리클럽	사천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신세계 센텀점	부산지역 카부츠벼룩시장 공동개최 및 병아리띠 풍뎡똥 참여
사천농업기술센터	농업한마당 축제 시 야외행사 참여	상가포로 항공사	아름다운 토요일 통해 물품기증 및 자원봉사 참여
사천체육회	사천시민체육대회 시 야외행사 참여	싱글즈	굿모닝 베트남을 위한 자선 전시회 수익금의 기부
사회복지법인 위캔	공정무역 제품 판매 공동캠페인 실행	쌍암동성당	광주첨단점 특별기증전 개최
삼남석유화학	여수둔덕점 기주연 행사 지원	아데나멜리스	아파트 분양아매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삼성생명	임직원 의류 기증 및 특별판매전	아드민테스트코리아	임직원 기증 참여
삼성애스원	아름다운 하루 통해 임직원 기증 및 자원봉사	아름다운 아웃렛	아름다운 하루 통해 임직원 기증 및 자원봉사
삼성증권	삼성증권 어린이나눔새앗캠프 자원 기부	아모레퍼시픽	아름다운 토요일 통해 물품기증, 나눔이벤트 및 자원봉사 참여
삼성카드 중앙지점	부산금정점 아름다운 토요일 참여	아발론교육	광주봉선점 아름다운 하루 참여
삼성테크윈제(사)업장	창원중앙점과 함께 탄소마일리지 활용 환경이벤트 진행	아이섹 코리아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부산대 나눔바자회 장소 및 자원 기부
삼양사	아름다운나눔파티 참여	아이안과	광주봉선점 학년특별기증전 개최
삼양식품	아름다운나눔파티 참여	이트뮤	자사 제품 기증
삼익아파트	광주봉선점 아름다운 아파트 캠페인 참여	인철수연구소	아름다운 토요일 통해 물품기증 및 자원봉사 참여 V3 현물 배분
삼정KPMG	아름다운 토요일 통해 물품기증 및 자원봉사 참여	알파	자사 문구류 및 위생용품 대량기증
삼천포제일병원	사천점 아름다운 토요일 참여	아탑중학교	분당아매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삼한CI	대구경북본부 기증품 수거트럭 금기 기부	양수발전본부	부산금정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삼남교회	생명나눔바자회 개최	양영중학교	분당아매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상무 힐스테이트	광주생촌점 아름다운 아파트 기증전 참여	양한구청	나눔바자회 물품기증 및 장소, 자원 기부
상무·첨단미르치과병원	2011 어린이 베품시장 광주권행사 공동주최	에너지관리공단	광주첨단점 아름다운 하루 참여
생명원, 생여생명원	명학점 7주년 행사 참여하며 특별 물품기증	에듀윌	자사 교재 기증 및 임직원 자원봉사
썬스나이트	가방 정기기증	엔투비	아름다운 토요일 통해 물품기증 및 자원봉사 참여
서면드-편한세상	부산부전점 기증특별전 진행	여수 까치정보	여수둔덕점 자원봉사 모집 광고 기부
서비스탑	광주역점 아름다운 하루 참여	여수소방서	여수둔덕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서울랜드	서울랜드 공원 내 나눔바자회 장소 및 자원 기부	연고제 기획단(인블루엔자)	2010 연고제 기간 나눔바자회 장소 기부
서울문화재단	하이서울페스티벌 나눔바자회 장소 및 자원 기부	연세대 자원봉사센터	연세대 나눔바자회 장소 및 자원 기부
서울시 교육청	서울평생학습축제 나눔바자회 장소 및 자원 기부	연세대 학생자원봉사팀장단	연세대 나눔바자회 자원 기부
서울시(사)공사	임직원 기증과 나눔파티 후원	영암마트 광주 전 지점	소외아동정서지원 기부캠페인 모금파트너
서울여자치과의사회	봉은사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오니트	공익상품팀의 패키지 디자인 재능기부
서울프린지네트웍	एको프린지프로젝트 공동진행 2011년 7월 친환경이벤트에 관한 협약	오병원	순천매곡점 야외 나눔장터 참여
석산고등학교	광주봉선점 아름다운 나눔학교 참여	오케이아웃도어닷컴	보상판매 캠페인 진행 및 고객 기증품 기증
선대가족봉사단	광주봉선점 아름다운 토요일 개최	옥션	아름다운 하루 통해 생물의류 기증
선화예고	분당아매점 일일가게 참여	온종합병원	부산부전점 아름다운 토요일 참여
성남시 미술협회	분당아매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울포유	순천연향점 순천매곡점 특별물품기증
성남아트센터	분당아매점 이전 기념식 지원	웅인구성 래미안 아파트	분당아매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성산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창원중앙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우리아비바생명	아름다운 하루 통해 임직원 기증 및 자원봉사
세아 강남도시가스	개봉점에서 아름다운 하루 진행	우체국보림회관	광주생촌점 예고장터 개최
세정	아름다운 토요일 통해 물품기증 및 자원봉사 참여	울시	아름다운토요일 통해 임직원의 기증과 자원봉사
세종사이버대학교	나눔바자회 물품기증 및 장소, 자원 기부	웅진빙크빅	보상판매 캠페인 진행 및 자사 물품 기증 임직원 도서 기증캠페인



원광대한병병원	광주성촌점 아름다운나눔장터 참여
위스	자사 의류 기증
유니레버	아름다운나눔파티 통해 제품 기증과 임직원 자원봉사 참여
유니베라	자사 생활용품 대량기증
은성유치원	부산구포점 특별기부금 기부
이랜드리테일	대구경북본부 매장개설 시 공간 임대비용 사회적기금으로 지원
이마트 순천점	순천매곡점 특별물품기증
이제석광고연구소	<올해는 꼭 받고싶다> 초코렛 포스터 기획
이지치일드유치원	매년 유치원 음악회 기부금 아름다운가게 기부와 병아리떼 행사 후원금 지원
인천공항공사	나눔바자회 물품기증 및 장소 지원 기부
인터컨티넨탈 봉은사점	아름다운 토요일 진행 및 임직원 정기 자원봉사
인텔코리아	임직원 기증 참여
일곡병원	광주역점 아름다운 하루 참여
일동제약	아름다운나눔파티 행사 자사제품 기증
임석로타리클럽	2010 빛고를 아름다운 세상 단체장터참가, 난치병어린이지원기금 기부
잉크사요	잉크 무료배출, 폐카트리지기증캠페인 및 후원금
자연생각	자사 생활용품 및 의류 기증
질만든만두	광주용봉점 기증도서 특별전 개최
장덕초등학교	사랑의 동전모으기 행사로 소와아동정서지원기금 기부
재형휘트니스센터	광주점단점 특별기증전 개최
전국주부교실 광주광역시지회	2010 빛고를 아름다운 세상 단체장터참가, 난치병어린이지원기금 기부
전남광주엄마들의 모임	온라인 광주용봉점 홍보 및 온라인 도서판매기회 제공
전남광주엄마들의 모임	2010 빛고를 아름다운 세상 단체장터참가, 난치병어린이지원기금 기부
전남대학교병원	2011 광주시민 아름다운 나눔의 날 시민장터 공동주관
전남도청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나눔장터 3일간 진행
전남도청	노동조합 순천매곡점 아름다운 토요일 개최
전남도청공무원노조	목포지역 아름다운 토요일 참여
전남사립간이파트연합회	목포해양문화축제 나눔장터 3일간행
전북유통물류센터	정읍수성점 특별물품기증
전북은행	나눔바자회 통해 임직원 기증 및 자원봉사
정보화진흥원	나눔바자회 장소 및 자원 기부
정지중학교	분당이매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제석초등학교	광주봉선점 아름다운 나눔학교 참여
제일기린아파트	아름다운나눔파티 후원과 자원봉사 참여
제일모직	자사제품 기증과 판매수익금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 통한 나눔이 만드는 초록세상 개최
조대여자중학교	광주봉선점 아름다운 나눔학교 참여
조선대학교병원	광주봉선점 아름다운 하루 참여
조용필렌클럽 '위대한탄생'	아름다운 토요일 통해 물품기증 및 자원봉사 참여
조폐공사 화폐본부	대구남산점 아름다운 하루 참여
존슨&존슨	자선바자회 통한 임직원 기증과 자원봉사
좋은사람들	아름다운 하루 통해 임직원 기증 및 자원봉사
(주)GS홈쇼핑	아름다운커피 판매방송 유치
(주)모젯	아름다운가게 기부 QR코드 개발 플랫폼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주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정무역 제품 판매 공동캠페인 실행
(주)비즈스프링	웹로그 분석 서비스 제공
(주)번잇푸드	공정무역 제품 판매 공동캠페인 실행
(주)씨나스	공정무역 다큐멘터리 상영을 위한 상영권 기부
(주)씨앤엠	경기 케이블 TV 일산점 이전 및 행사 등 홍보 지원
(주)셀스데이지	대량발송 메일서비스(뉴스레터 등) 기부
(주)이로온넷	공정무역 제품 판매 공동캠페인 실행
(주)일구오공	원재료 창고 기부
(주)제이앤푸드	원재료 창고 기부
(주)지에스홈쇼핑	공정무역 제품 판매 공동캠페인 실행

(주)케이앤코퍼레이션	아름다운커피 애경선물세트 기획
(주)파루	순천매곡점 특별물품기증
중소기업연수원	사회적기업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중앙동사무소	순천매곡점 야외 나눔장터 참여
중앙신협	순천매곡점 야외 나눔장터 및 업무협약
중앙일보	독서 아름다운나눔장터 홍보파티너, 병아리떼중풍중 홍보파티너, 위아자 나눔장터 주최파티너
중앙직업전문학교	대구남산점 아름다운 하루 참여
주비스	아름다운 토요일 통해 물품기증 및 자원봉사 참여
즐거찾기	광주전남본부 특별기증품 기증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회원사 임직원 물품기증 및 자원봉사
지아컨설팅	아름다운가게 트럭기금 기부 참여
지오투	보상판매 캠페인 진행 및 고객 물품 기증
창원노인종합복지관	창원중앙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창원시간조사회	창원중앙점 아름다운 토요일 참여
창원유지 베드민턴 클럽	창원중앙점 아름다운 토요일 참여
창조의아침 일산캠퍼스	일산점 거주민 전시회 그림 재능기부 및 물품기증
천재교육	자사 교재 기증
천호식품	확장의 스위치 캠페인 통한 고객참여 기증캠페인 진행
첨단라이온스클럽	2010 빛고를 아름다운 세상 단체장터참가, 난치병어린이지원기금 기부
첨단미르치과병원	광주점단점 아름다운 하루 참여
첨단여성라이온스클럽	2010 빛고를 아름다운 세상 단체장터참가, 난치병어린이지원기금 기부
카디프생명보험	아름다운 하루 통해 임직원 기증 및 자원봉사
카파즐거찾기	공정무역 제품 판매 공동캠페인 실행
코난테크놀로지	아름다운 토요일 통해 물품기증 및 자원봉사 참여
코델리커피	원재료 창고 관리 및 생두 품질 조언
코레일	아름다운 하루 통해 전국 임직원 물품기증 및 자원봉사 참여
코파스	소와이동 의료비 후원
퀵컴코리아	아름다운 토요일 통해 물품기증 및 자원봉사 참여
크리에이티브이아	공정무역 커피믹스 홍보대사 섭외 및 마케팅 기획
키티	대구남산점 액세서리 정기 기증
타치포곳	야외 행사시 현수막 재 활용 분리수거함 지원
텃밭 윤임점	소와이동정서지원기금 기부
테리토스	'I am melody' 도서 수입금 일부를 공정무역 생산자 발전기금에 기부
토비무역	광주전남본부 기부금
티브로드	티브로드 케이블 TV 영상광고 기부
티켓몬스터	온라인 기증캠페인 및 소셜미디어 통한 제품판매 협조
파나 M&I	부산 대전 버스샐러드 광고 기부
파주	LG디스플레이 일산점 정기 자원봉사
퍼블리카	아들리에 퍼블리카 아들리에 패션쇼에서 스카프 및 넥타이 판매 수익금 기부
포스토리	뷰티풀웨딩캠페인 시즌2 파티너
푸드마트	공정무역 제품 판매 공동캠페인 실행
푸르덴셜투자증권	자사 종고 컴퓨터 기증
푸르지오아파트 부녀회	사천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불무원	결식아동 간식비 지원사업 후원
프리앤메지스	대구경북본부로 의류대량기증
하나병원 순천매곡점	아름다운 토요일 개최



하남농협 덕풍지점	하남점 기주년 행사 시 생일떡 기부	화승	아름다운 토요일 통해 임직원 물품 기증 및 자원봉사
하남청년회의소	하남점 기주년 행사 시 현수막 및 Y배너 제작 기부		소외아동체육활동 지원 후원
하동교육지원청	사천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환경부	임직원의 기증과 자원봉사 참여
하이라이프도체	나눔바자회 통해 임직원 물품 기증 및 자원봉사	효성	새내경매 수익금의 정가적 기부
한겨레신문 광주지사	2010 빛고를 아름다운 세상 단체장터참가, 난치병어린이지원기금 기부	흥성기획	부산지하철 1호선 안전펜스 광고 기부
한겨레신문사	델피리와 친구들 전시회내 모금캠페인 및 공정무역 캠페인 진행	(재)한국우편물류지원단	대구지사 대구경북본부 매장 기증품 배송 물류지원
한국화생활과학	자사제품 판매 수익금의 일부 기부	(주)간지 쌀집총각	광주전남본부 의류 및 쌀 기증
한국거래소	부산부진점 기증특별전 진행	(주)간지나라	광주첨단점 특별기증전 개최
한국공항공사	부산구포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주)씨앤에스테테크놀로지	주요인사 감사선물로 연속 구매
한국관광공사	기념품 공모전 수상작품 기증	(주)아이피케이	부산해운대점 아름다운 토요일 참여
한국농어촌공사	나눔바자회 후원	(주)아삭 공정무역	제품 판매 공동캠페인 실행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아름다운 토요일 통해 물품기증 및 자원봉사 참여	(주)천삼백케이	공정무역 제품 판매 공동캠페인 실행
한국바스프	여수둔덕점 병아리떼 풍뎡종 협찬 및 아름다운 하루 진행	09크린	이사기증 캠페인 파트너
한국부인회 성남지회	분당이매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2PM 찬성 웹사이트 아심찬	일산점 아름다운 토요일 참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창원중앙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3QR	자사 의류 기증을 통한 아름다운 하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아름다운나눔바자회 행사 기부와 자원봉사	5.8 민주화쟁기념 행사위원회	2011 광주시인 아름다운 나눔의 날 시민장터 주최
한국승강기협회	대구경북본부 나눔바자회 행사 자원봉사		소외아동정식지원기금 기부
한국씨티은행	아름다운 토요일 통해 물품기증 및 자원봉사 참여	7기 목포시민경찰	목포지역 아름다운 토요일 참여
한국아쿠르트	부산명륜동역점 아쿠르트 아줌마와 함께하는 나눔행사 개최	AK플라자	분당이매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한국리류산업협회	해외 유명브랜드 의류 샘플 1339점 기증	BPW전문직여성클럽	광주클럽 무등클럽 2010 빛고를 아름다운 세상 단체장터참가, 난치병어린이지원기금 기부
한국화학연구소	광주생촌점 아름다운 토요일 개최	CJ HTH	무료 택배서비스 제공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 대구경북본부 나눔장터 참여	CJ오쇼핑	아름다운 하루 통해 물품 기증 및 자원봉사
한국전파진흥원	전남지역본부 광주생촌점 특별기증전 개최	CNP 차원백화점	아름다운 하루 통해 임직원 물품 기증 및 자원봉사
한국조식	자사제품 대량기증 및 현물배분	DHL	해외 지원 프로그램 물품 배송 협찬
한국토요타자동차	고객 참여 바자회 진행 후 수익금 기부	EBS	꿈을 키워주는 바자회 통한 임직원 기증 및 자원봉사
한국항공노동조합	사천점 1주년 행사 및 아름다운나눔바자회 참여	EXR	아름다운 토요일 통해 임직원 물품 기증 및 자원봉사
한국화이자제약	임직원 기증 및 자원봉사 통한 일일가게 개최	Furla	보상판매 캠페인 진행 및 고객 물품 기증
한독약품	아름다운 토요일 통해 물품기증 및 자원봉사 참여	GS샵	공익상품 개발기금 및 판매유통 지원 기부
한솔은고	병아리떼 행사후원과 뷰티풀스테이션 아름다운책상 행사 진행	IKEA월드	자사 생활용품 기증
한솔트랜스	부산부진점 기부홍보전단 제작 및 금액지원	KBC	김학살의 추억찾기 광주전남권역 기증캠페인 참여 및 아름다운 하루 개최
한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 아름다운 하루 참여	KBS	새내 바자회 개최
한전 광주전남본부 사회봉사단	2011 어린이 베품시장 광주권행사 행사비 일부 기부	KBS	새내 바자회 개최
한진택배	무료 택배서비스 제공	KB투자증권	움직이는 가게 나눔행사 통한 임직원의 기증 및 자원봉사
한화 호텔&리조트	서울역점 정기 자원봉사	KT 호남무선마케팅단	2010 빛고를 아름다운 세상 단체장터참가, 난치병어린이지원기금 기부
할리데이비스코리아	보상판매 캠페인 후 고객 기증품 기증	KT 목포지점	목포하당점 6주년 행사 참여
해운대소방서	의용소방대 부산해운대점 아름다운 토요일 참여	KT 분당지사	분당이매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해운대중학교	부산해운대점 아름다운 토요일 참여	KT 울레북	고객참여를 통한 도서기증 캠페인 진행
해피비재단	병아리떼풍뎡종 홍보 파트너	LG생활건강	자사제품의 정가적 기증과 임직원 참여 행사
행운마켓	자사 액세서리 기증	LG전자	독선 아름다운나눔장터 가전되살림 재능기부 및 지역이동센터 TV지원
헨리코튼	보상판매 캠페인 진행 후 고객 물품 기증	MPC	아름다운 하루 통해 물품 기증 및 자원봉사
헨켈코리아	아름다운 하루 통해 임직원 물품 기증 및 자원봉사	PIA 컴	이외행사시 전사물 설치지원, 재원 기부
현대로지엠	아름다운 토요일 통해 임직원 물품 기증 및 자원봉사	QTV	채널 론칭주년 기념 자선바자회
현대로템	창원중앙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SBS	독선 아름다운나눔장터 및 병아리떼풍뎡종 홍보 파트너 및 자사 불용 비품 기증
현대모비스	아름다운 토요일 통해 임직원 물품 기증 및 자원봉사	SCG	경영지원사(태인사/공육부문) 설계 컨설팅 지원
현대병원	순천연향점 아외 나눔장터 참여	SHOPLE	매월 발간되는 소플에 아름다운가게 지면광고 기부
현대엔지니어링	아름다운 하루 통해 임직원 물품 기증 및 자원봉사	SICAF	국제문화예술포럼 페스티벌 나눔바자회 장소 및 재원 기부
현대택배	무료 택배서비스 제공	STX	서울역점 정기 자원봉사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순천연향점 2주년 행사, 신년음악회 개최 및 매주 금요일 사원자원봉사	TNS R코리아	아름다운 토요일 통해 임직원 물품 기증 및 자원봉사
현대해상	아름다운 토요일 통해 임직원 물품 기증 및 자원봉사	TSL	명학점 통해 와이셔츠 등 특별 기증
호남화력발전저	여수둔덕점 아름다운 하루 진행	UPS KOREA	기증수거 차량과 환경교육 지원 프로그램 후원
홈플러스	홈플러스데이 개최 통한 자사 제품 대량 기증 및 나눔바자회 진행	V&V생명과	대구남산점 화분 기증 참여
홍법사	부산금정점 아외판매 행사부스 제공		
화순경찰서	광주봉산점 아름다운 하루 참여		
화순실업고등학교	광주첨단점 특별기증전 개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광주역점 아름다운 하루 참여		



뷰티풀 파트너 / 개인

성명	내용
김진희 KBS아나운서	강동고덕점 개점식 진행 재능기부
최기환 SBS아나운서	인천연수점 개점식 진행 재능기부
김영미	광명하인점 핸드메이드 팬시제품 재능기부
이철원	광주용봉점 6주년 기념 기부
주 흥	광주용봉점 컬러풀마인드 재능기부
강소영	광주용봉점 장미 리폼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기증
고사리	광주용봉점 2주년 행사에서 핸드페인팅 도자기공예 재능기부
김성진 영암마트 대표	광주전남본부 나눔보따라+연탄배달 대작전 행사 후원금 기부
김성철 무등산경정산과 원장	광주전남본부 나눔보따라+연탄배달 대작전 행사 후원금 기부
강영옥 예촌 대표	광주전남본부 소외아동정서지원기금 기부
이중례	순천매곡점 활동천사 소모임 생활수목화 재능기부
장은하	활동천사 소모임 천연비누 만들기 재능기부
윤호성 교수	친환경 캠페인 디자인 티셔츠 재능기부
김호중 성악가	자선 콘서트 통해 기부금 대구경북본부로 전달
박성욱 사진작가	에코파티메이커 광고는공해다 포스터 및 제품 사진촬영 재능기부
문성실 요리연구가	‘질막게 해주세요’ 프로그램 통해 5000만원 기금 조성 및 재능기부
강병인 캘리그래퍼	‘희망을 쓰는 마음, 사랑으로 쓴 글씨’ 캘리그래피 전시회 작품 재능기부
나성문	그린스폰 30영상 편집 재능기부
성노현	그린스폰 30영상 녹음실 사운드믹스 재능기부
고 이정숙천사님 유가족	목포지역 ‘이정숙 나눔의 날’ 참여
김현승안나	우간다 구무핀도 커피 협동조합 방문, 방문기 및 동영상 제공, 네덜란드 생신자 모니터링 방법으로 공육 및 컨설팅 재능기부
이상애	2010 국제 공정무역 회의 동시통역 재능기부
한경선	2010 국제 공정무역 회의 동시통역 재능기부
이세원	2010 국제 공정무역 회의 동시통역 재능기부
박경철	2010 국제공정무역회의 진행(재능기부)
페니이브(판다독)	공정무역 웹툰 재능기부
신의철	공정무역 웹툰 재능기부
변지진(무작핑크)	공정무역 웹툰 재능기부
백화정	공정무역 웹툰 재능기부
박화순	공정무역 홍보대사
소이	공정무역 홍보대사
서영희	공정무역 홍보대사
이루마	공정무역 홍보대사
한희정	공정무역 홍보대사
곽윤찬	‘I am melody’ 도서 수입금 일부를 공정무역 생산자 발전기금에 기부
최재원	아름다운나눔장터 홍보대사
한경아	페현수막 정비구니, 대안생리대 만들기 재능기부
정진미	페지로 수제 종이만들기 프로그램 재능기부
남춘자	개똥이책 대표로 아름다운나눔장터 미취학 어린이 놀이프로그램 재능기부
윤태웅	재미있는 캐리커처 재능기부
유재신	삼선교점 개인 특별기증전 참여
성희경	삼선교점 개인 특별기증전 참여
손인심	동대문의료상가 대량기증
한세희 아이탬아시아 대표컨설턴트	전력망 설계 컨설팅 지원

놀라운가게 참여 현황

구분	이름	후원분야
1호점	당고집	국내소외아동정서지원
2호점	그릴재미 미술원	니마스페캔지스
3호점	카페웅	국내소외아동정서지원
4호점	호리호리물	니마스페캔지스
5호점	큰길함안휴게소	국내소외아동정서지원
6호점	JK브라더스	국내소외아동정서지원
7호점	웃파는당고집	굿모닝베트남
8호점	카페 콩드리	굿모닝베트남
9호점	The B	니마스페캔지스
10호점	티테라피	국내소외아동정서지원
11호점	잘만든만두	국내소외아동정서지원
12호점	r.s.v.p	굿모닝베트남
13호점	itckorea (인크사요)	수배송트럭기금
15호점	수타삼국지	국내소외아동정서지원
16호점	카페 하루리	니마스페캔지스
17호점	커피향앗간	국내소외아동정서지원, 놀라운가게한편그림재능기부
18호점	소울푸드카페	국내소외아동정서지원
19호점	크리에이티브 부티크 갑	니마스페캔지스
20호점	차라 할포스	니마스페캔지스
21호점	2세기 약국	니마스페캔지스
22호점	소격동문방구 (TABLE OFFICE)	니마스페캔지스
23호점	bymee	굿모닝베트남
24호점	인테리어백화점	굿모닝베트남
25호점	아이디올	국내소외아동정서지원
26호점	밥보다국수	니마스페캔지스
27호점	자안에스테틱 둔촌점	국내소외아동정서지원
28호점	유레카한수위학원	니마스페캔지스
29호점	KDC광양점	국내소외아동정서지원
30호점	삼성영아미곡교실	니마스페캔지스
31호점	데아엔라이프	국내소외아동정서지원
32호점	체화당	공간대관기증및프로그램지원
33호점	하늘빛사진관	굿모닝베트남
34호점	경주 버즈커피	니마스페캔지스
35호점	밀키웨이	국내소외아동정서지원
36호점	티카페 사진관	니마스페캔지스
37호점	영일역점 국내 떡볶이	국내소외아동정서지원
38호점	노pd네 콩북는집	국내저소득소외어린이
39호점	더나은김치	국내저소득소외어린이
40호점	북촌손만두 북촌점	국내저소득소외어린이
41호점	카페 1330	국내저소득소외어린이
42호점	전씨내국수	국내저소득소외어린이
43호점	디랄쥬	국내저소득소외어린이
44호점	젠테라피 내츄럴 힐링센터	국내저소득소외어린이
45호점	키친소우미	국내저소득소외어린이





아름다운가게

서지문화 예술위원회는 언제나
아름다운 토요일

M
25

서지문화 예술위원회는 언제나
아름다운 토요일

아름다운가게 안국점
자원봉사자 모집

아름다운가게는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는
나눔과 순환의 사랑방입니다.
일주일에 4시간,
안국점의 활동목사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자원봉사 문의/신청
736-0660

펴낸날 2011년 11월 1일
글쓴이 김선우 외
펴낸이 김선우
펴낸곳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기획 / 편집 아름다운가게 홍보캠페인팀
디자인 / 제작 크리에이티브 부티크 갑

주소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45
전화 1577.1113
팩스 02.730.0525
홈페이지 www.beautifulstore.org

copyright© 아름다운가게 2011 비매품

참 재미있는 가게 이야기

10번째 이야기

아름다운가게 대표번호 : 1577-1113